

단국대학교 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1책

소곡리 신월의 청동기시대 무덤

1988년 12월

단국대학교 박물관

간행사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경상남도에 분포한 유적과 유물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1967년부터 1969년에 이르는 3년 동안 사천지역을 집중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서포면 구평리의 신석기시대 조개더미, 정동면 소곡리의 청동기시대 무덤, 용현면 송지리의 가야시대 무덤을 발굴하여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에 걸친 중요한 유적을 이 지역에서 확인하였고, 이들 유적에 관한 내용은 약보고의 형식으로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곡리의 신월 마을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무덤 유구의 특징과 출토 유물의 성격이 좀더 상세하게 고찰되었다. 그 결과, 이 유적에서 특이한 무덤의 형식이 밝혀져, 청동기시대에 쓰여진 묘제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아울러 토기의 출토 상황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발굴 당시의 유적과 유구에 대한 조사가 잘 정리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신월 유적의 청동기시대 무덤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신월 유적의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사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988년 12월

박물관장 차 문 섭

목 차



간행사

I. 머리말.....	5
II. 유구의 관찰.....	7
1. 기구역.....	10
2. 니구역.....	18
3. 디구역.....	19
4. 근구역.....	23
III. 토기의 분석.....	23
1. 민토기.....	24
2. 붉은간토기.....	33
IV. 조사자료의 비교 검토.....	34
1. 무덤의 구조.....	34
2. 토기에 대한 고찰.....	40
V. 맺음말.....	44

지도, 사진, 그림, 표 차례

지도 1. 유적의 위치	6
사진 1. 유적의 발굴 모습	9
사진 2. 발굴된 유적의 전체 모습	12
사진 3. 1호 무덤의 유구를 발굴하는 모습	14·15
사진 4. 2호 무덤의 유구	16
사진 5. 9호 무덤의 유구	17
사진 6. 4호, 5호, 6호, 7호, 8호, 12호 무덤의 유구	20
사진 7. L구역과 C구역의 경계부분(위)과 8호 무덤의 유구(아래)	21
사진 8. 4호, 5호,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25
사진 9. D칸에서 나온 붉은간토기(위)와 민토기(아래)	26
사진10. 민토기 절면의 다듬은 자국	29
사진11. 4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50
사진12.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51
사진13. 5호 주변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52
사진14.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53
사진15.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와 D칸의 붉은간토기(㉔)	54
그림 1. 유적지 주위에서 관찰된 층위 자름면	8
그림 2. 발굴 유구의 평면도	13
그림 3. 1호(왼쪽), 3호(가운데), 6호(오른쪽)무덤의 유구 평면도	22
그림 4. 민토기의 곧은 입술과 오므린 입술	31

그림 5. 무덤자리의 둘레선과 널의 방향	35
그림 6. 신월 유적에 나타난 돌칸무덤의 형식	37
그림 7. 4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55
그림 8. 4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56
그림 9.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57
그림 10.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58
그림 11.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59
그림 12.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60
그림 13.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61
그림 14.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62
그림 15.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63
그림 16.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와 D칸의 붉은간토기(㉓)	64
표 1. 토기의 출토 상황	24
표 2. 토기의 박편 분석 결과	27
표 3. 민토기의 입술부분 두께(t)	30
표 4. 민토기의 몸체부분 두께(t)	30
표 5. 민토기의 밑부분 두께(t)	30
표 6. 민토기의 밑부분 형태	32
표 7. 민토기의 밑부분 지름(d)의 크기	32
표 8. 바닥에서 위로 그릇이 벌어지는 각도(a)	32
표 9. 붉은간토기의 몸체부분 두께(t)	34
표 10. 무덤방의 형식과 크기	39
표 11. 토기 분석 자료의 비교	42

소곡리 신월의 청동기시대 무덤

정영호 한창균
신숙정 양현주

I. 머리말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69년 8월 4일부터 15일까지 경상남도 사천군 정동면 소곡리의¹⁾ 신월 마을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12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당시의 조사작업에는 정영호 발굴단장을 중심으로 사학과 재학생이 10여명 참가하였다. 발굴을 하는 동안 조사된 자료의 기록은 이호영이 담당하였으며, 유구의 실측에 있어서는 신영훈 문화재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았고, 작업의 진행에는 차문섭 교수의 지도가 있었다.

신월 마을이 들어앉은 소곡리의 동쪽으로는 큰넷고랑(현재는 사주천 또는 사천강이라 불리움)이 있으며, 이것은 서북 방향으로 흐르며 남해로 들어간다. 서쪽 지역은 모두가 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서남쪽에 자리한 흥무산(454.7m)이다(지도 1). 남쪽으로는 소곡리와 신촌리(고성군 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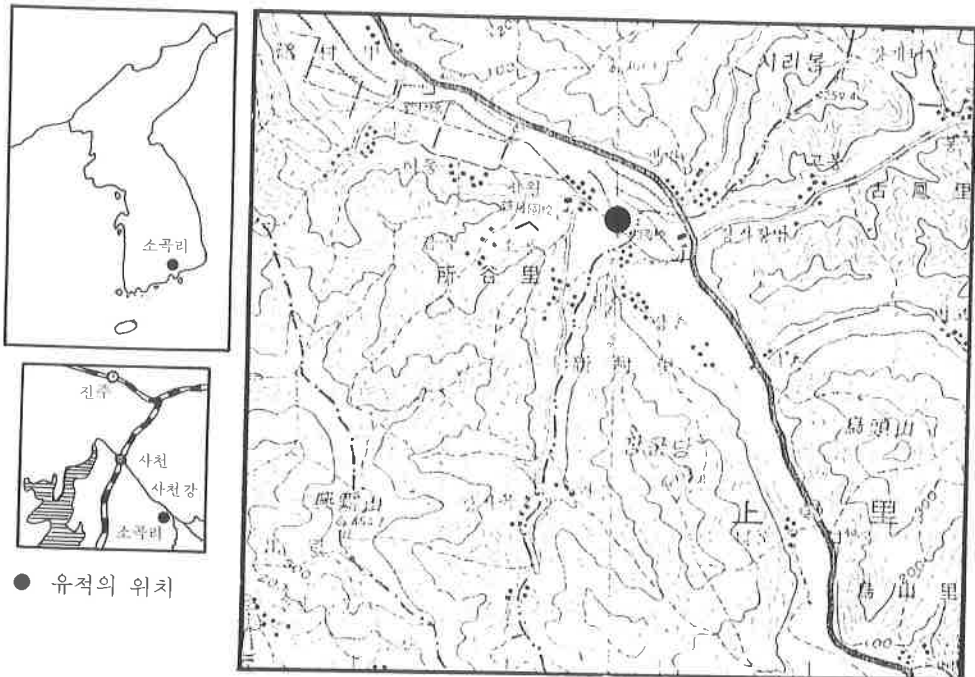
1) 소곡리(所谷里)라는 이름은 쇠(금)를 많이 캐낸 까닭에 붙여진 것으로 쇠실, 썩실 또는 금곡(金谷)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한글학회, 1980).

면) 사이로 작은 냇가 있고, 이곳으로부터의 물줄기가 신월 마을 앞에서 큰 냇고랑으로 흘러든다. 신월 마을은 사천으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약 10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마을에서의 유적 조사작업은 홍수로 인하여 유구의 일부가 드러난 냇가 가까운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홍수를 입어 나타난 강쪽의 퇴적 자름면에서는 그림 1에 있는 바와 같이 돌널형식의 무덤방과 그 위쪽 부분에 깔려진 판판한 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넓은 지역의 발굴에 앞서 먼저 4개의 발굴칸(A, B, C, D)을 남남서에서 북북동방향으로 설정하였다(그림 2). 각 칸의 너비는 1.5m였고, 칸마다 2m를 띄웠다. 각 발굴칸의 길이는 서로 달라 A칸=18.5m, B칸=19m, C칸=22m, D칸=27m이었다.

조사가 진행되어 유구의 성격이 차츰 밝혀지면서 발굴지역이 넓어져 A칸의 왼쪽과 D칸의 오른쪽 부분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유구가 없었던 C



(지도1) 유적의 위치

1 : 50,000

칸과 D칸의 냇가쪽은 설정된 발굴칸 부분만 조사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조사작업이었으나, 특이한 무덤의 구조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었고, 장례에 관련된 당시 사람들의 의식까지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주목을 끈다. 다음에서는 이제까지 정리된 발굴일지, 실측도면, 사진 자료등을 바탕으로 신월 유적의 청동기시대 무덤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 글에 실린 토기의 사진 촬영에는 손기언(단국대 서울캠퍼스 사학과 2년)님이 수고하였고, 유물의 정리에는 박준범(단국대 천안캠퍼스 역사학과 2학년)님의 도움이 있었다. 발굴 당시의 조사 상황에 관하여 유익한 설명을 해주신 이호영 교수(단국대 사학과)님과 김상조(전 사천군수)님, 그리고 유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말을 베풀었던 하문식(충북대 박물관)님께 감사를 드린다.

II. 유구의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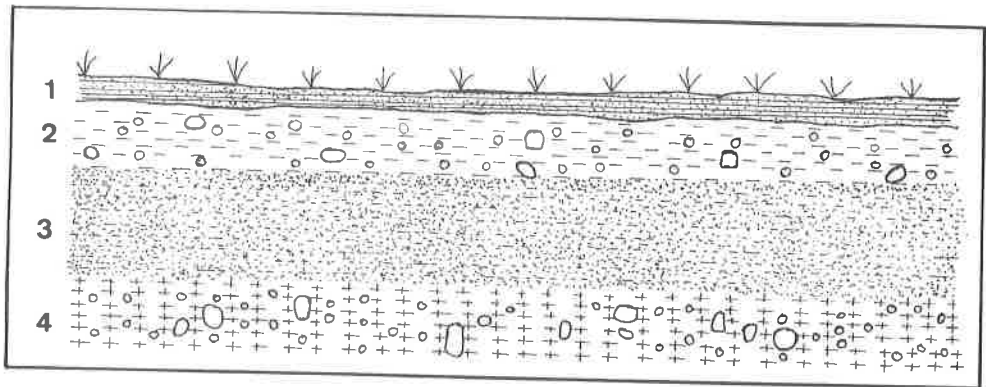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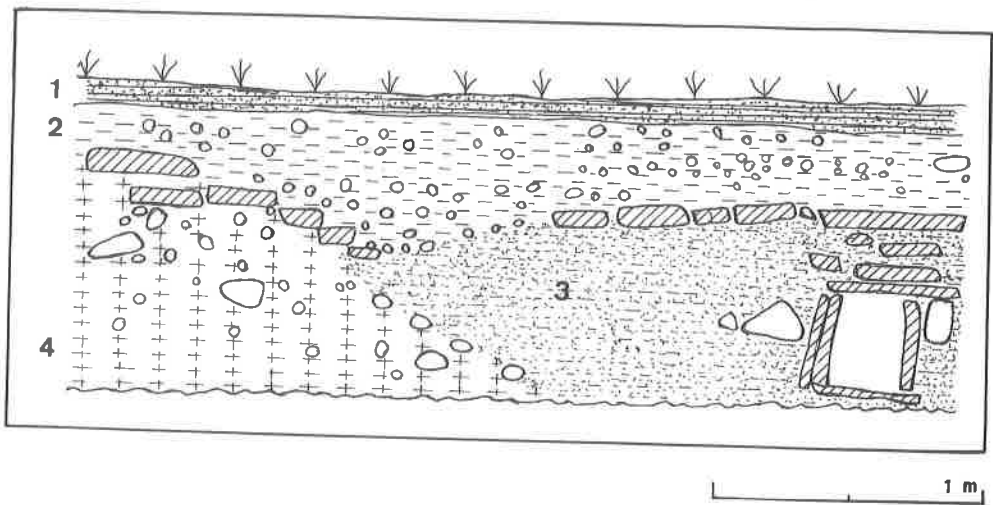
유적지 근처에서 관찰되었던 퇴적층의 두께는 강뚝의 냇가쪽이 약 1.1m, 그 안쪽이 약 1m 정도이었다(그림 1). 층위의 구성은 위로부터 표토층(1층), 자갈층(2층), 검은흙층(3층), 자갈층(4층)으로 이루어지며, 4층은 강의 바닥에 해당한다. 지층의 성격으로 볼 때, 4층과 2층의 퇴적은 물의 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러한 퇴적의 영향으로 이 일대의 지표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층과 2층이 형성되었을 당시의 강의 물높이는 현재보다 높았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퇴적 요인이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또는 보다 넓은 지역에 적용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3층을 전후한 시기의 자연환경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4개의 층 가운데 무덤이 쓰여진 곳은 3층이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바 있듯이 무덤방은 검은흙층을 파서 마련되었고, 3층과 2층의 경계지점에 돌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3층의 퇴적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4층의 표면에 판판한 돌이 덮여진 부분도 있다.

신월 유적의 무덤에 쓰여진 간돌과 뚜껑돌은 거의가 모랫돌(sandstone)로서 이 암질은 소곡리 일대에 널리 퍼져 있다. 유적 근처의 산기슭에는 풍화를 받아 쪼로 갈라진 돌들이 표면에 드러나 있기도 하다.

대체로 지표에서 50~60cm 떨어진 아랫부분에서 유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사진 1). 지역에 따라서는 그보다 얕은 지점에서 유구가 보이는 부분



〈그림1〉 유적지 주위에서 관찰된 층위 자름면
(위 : 강둑의 바깥쪽, 아래 : 강둑의 안쪽).



〈사진1〉 유적의 발굴 모습

도 있었다. 발굴 초기에 있어서는 조사된 일부의 유구만으로 이 유적의 성격이 무덤인지 또는 살림터인지를 확실하게 가려내기가 어려웠다. 드러난 유구보다 위쪽에서 깨어진 토기의 부스러기가 조금 나왔으며, 특히 D칸에서는 지표로부터 20cm의 아랫지점에서 민토기의 밑부분과 붉은간토기의 조각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더우기 무덤의 구조로 판단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까닭에 이 지역이 살림터 유적과 관련될 가능성을 추측해 보기도 하였다.

발굴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유구의 성격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A칸의 1호 무덤인 경우에는 돌레의 갓돌이 둥글게 돌려져 있어 무덤으로서의 특징이 비교적 쉽게 드러났다. 그러나 나머지 B, C, D칸에서는 판판한 돌들이 깔린 상태로 유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집자리의 바닥이 될 가능성도 엿보면서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그후 발굴지역이 넓어지고, 유구의 전체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발굴된 유구가 모두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사진 2).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무덤은 12기이다. 이 가운데 8기는 비교적 그 형태가 잘 보존되었으나 나머지는 본래의 제 모습을 잃고 있었다.

신월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무덤을 쓴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의 구역(ㄱ, ㄴ, ㄷ, 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ㄱ구역은 하나의 무덤자리에 단 1개의 독립된 널만이 있는 한널무덤 형식이고, ㄴ과 ㄷ구역은 한 구역 안에 여러개의 널이 들어 있는 여러널무덤 형식이다²⁾.

1. ㄱ구역

1호, 2호, 9호 무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무덤의 돌레선은 둥글거나 모난 형태이다. 1호 무덤은 길이가 6m, 너비가 5.3m로서 아주 둥근 모양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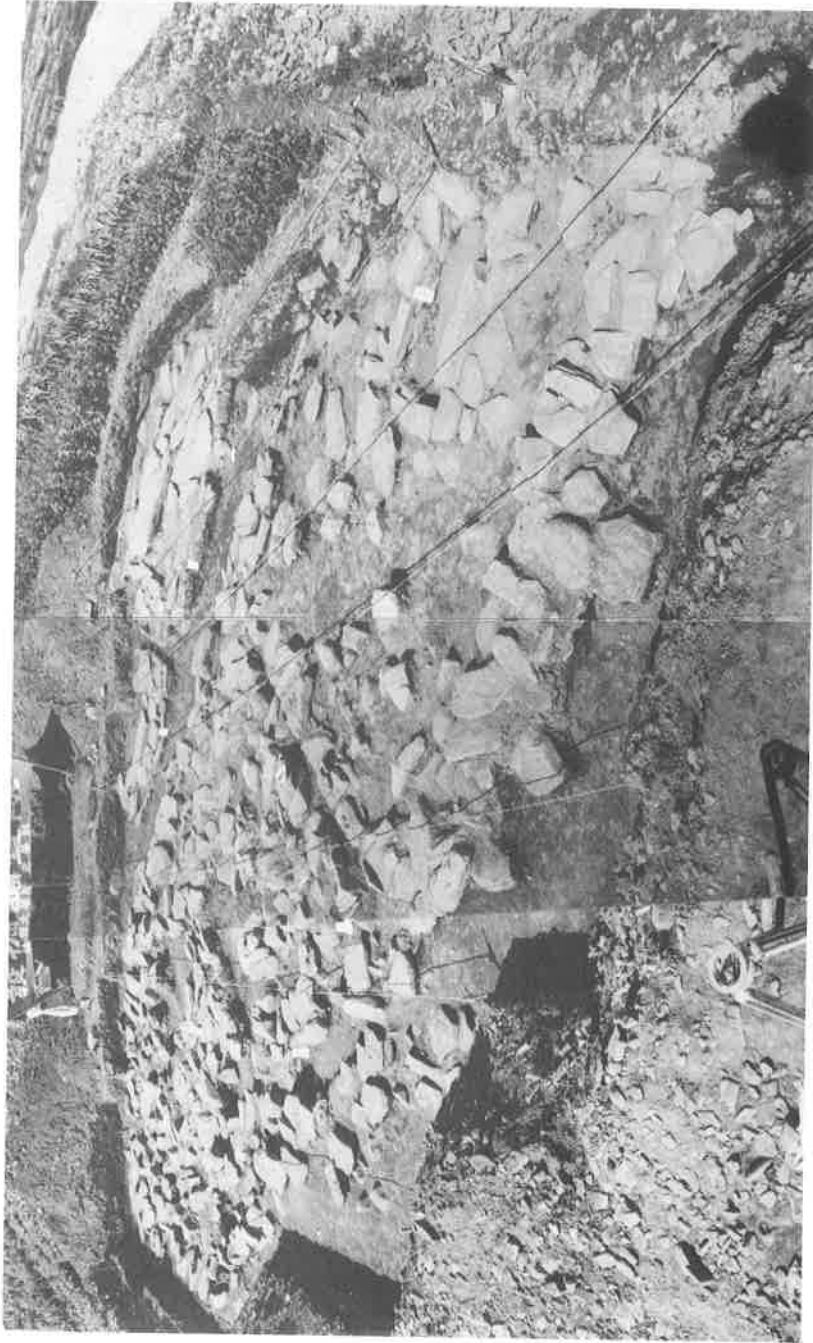
2) 한널무덤과 여러널무덤에 대응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개별무덤과 집체무덤(석광준, 1979)이라는 용어가 있다.

다. 이 무덤은 소곡리에서 발굴된 것 가운데 형태상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지니고 있으며, 전혀 교란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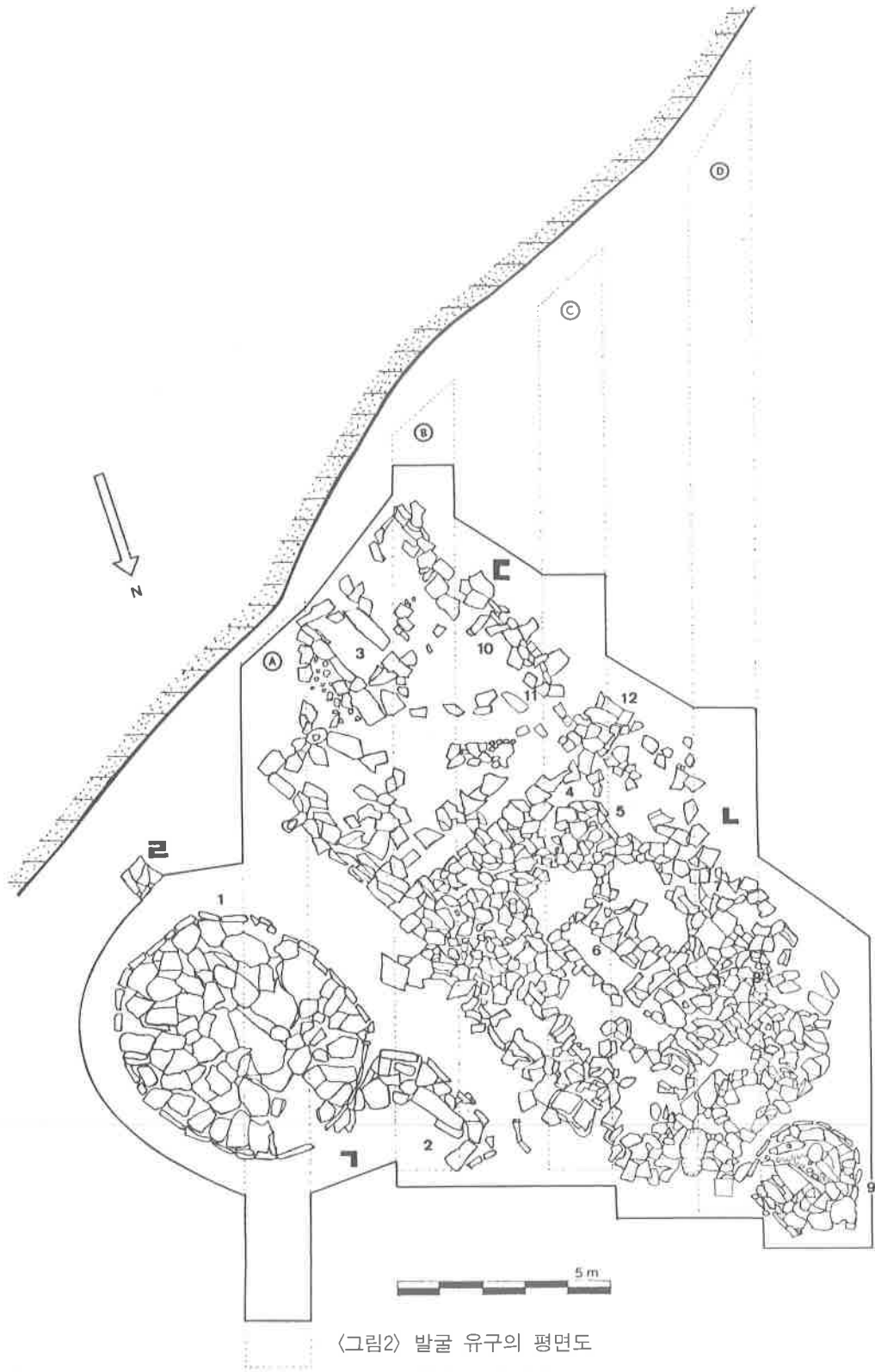
1호 무덤에서 특기되는 것은 가장자리를 따라 갯돌을 박아 둘러 무덤의 영역을 분명하게 표시했다는 점이다(사진 2). 갯돌 안쪽으로는 판판한 돌이 전면 에 깔려 있었고, 무덤의 한복판에는 넓은 판석 1장이 한 단 높게 놓여 있었다. 이 돌들을 모두 걷어낸 결과, 그 아래에는 무덤의 길이축을 가로지른 방향으로 너비 약 50cm, 길이 약 100cm 정도의 판판한 뚜껑돌이 5장 덮여 있었다(사진 3). 계속해서 5개의 돌을 들어내니 무덤방이 나타났다. 돌덧널 형식의 이 널은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안에서 나온 유물로는 토기 조각이 1점 있었다. 널의 크기는 길이 180cm, 너비 80cm, 깊이 75cm이며 바닥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었고, 부분에 따라 자갈이 몇점 있었다. 무덤방의 길이축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이는 큰넷고랑의 물흐름 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2호 무덤은 1호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서쪽과 남쪽의 유구가 파괴된 상태이었다. 지금 남아 있는 유구의 최대 길이는 약 3.5m이다. 1호 무덤과 마찬가지로 2호 무덤의 둘레에도 갯돌이 둘러져 있었다. 그런데 2호 무덤의 둘레선 모양은 1호 무덤의 그것과는 달리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현재 조사된 유구는 4번이 각을 이루며 연결된 모습을 띠고 있다. 파괴된 부분의 원래 상태를 추정하여 볼 때 둘레선의 전체 모양은 다섯모(또는 여섯모)를 이루었으며, 한 번의 길이는 2m가 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무덤을 애초에 쓸 당시부터 만들어졌었다고 생각된다. 1호와 2호 무덤 사이의 경계지점에 빈 자리(사진 4)가 분명하게 있는 점으로 볼 때, 두 무덤을 만든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확장 내지는 침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다른 구역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런 둘레선의 모습은 무덤을 만들었던 당시에 지상에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³⁾.

3) 이와 같은 예는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샘밭 유적(김재원·윤무병, 1967. 92쪽)의 B호 돌 무덤에서도 관찰되었다.



〈사진2〉 발굴된 유적의 전체 모습



〈그림2〉 발굴 유구의 평면도



이곳에 문헌 주검의
뉘을 위하여……



남쪽에서 본 1호
무덤의 모습.



맨위의 판석을 드러내고
조심스럽게 발굴을 시작.

〈사진3-1〉 1호 무덤의 유구를 발굴하는 모습



맨위의 판석 아래에 깔린
돌의 놓임새.



무덤방을 덮고 있는
5장의 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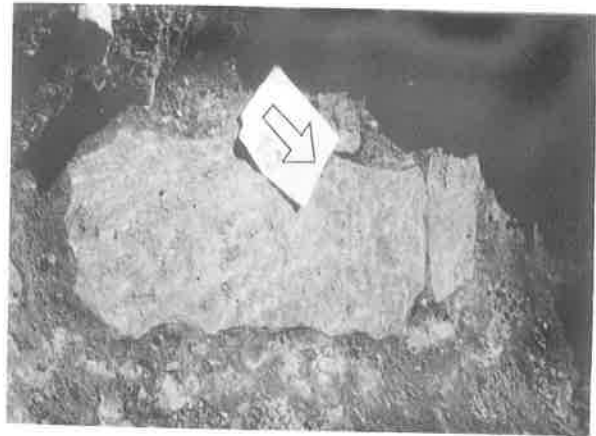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돌덧널형식의 무덤방.

〈사진3-2〉 1호 무덤의 유구를 발굴하는 모습



1호와 2호 무덤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타남.



2호 무덤의 널을
덮고 있는 뚜껑돌.



2호 무덤의
돌널식 무덤방.

〈사진4〉 2호 무덤의 유구



②



④



①



③

〈사진5〉 9호 무덤의 유구

갯돌의 안쪽으로 깔려 있는 돌의 상태와 가운데쪽으로 판석 한 장이 1단 높이로 또다시 놓여 있는 생김새는 1호와 2호 무덤에서 함께 관찰되는 특징이다. 그러나 돌이 깔린 면의 아래쪽에 나타난 유구의 형태는 두 무덤이 서로 모습을 달리한다. 즉 2호 무덤에서는 곁돌을 걷어낸 다음에 길고 짧은 판자꼴 모양의 뚜껑돌이 2개 나타났다. 전체 크기는 길이가 140cm, 너비가 40cm이었다. 이 뚜껑돌을 들추어내니 그 아래에는 돌널 형식의 무덤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유물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돌널의 길이측을 따라 좌우에 각각 2장씩, 양끝쪽으로 각각 1장씩의 판자돌이 있었다. 무덤방은 길이 140cm, 너비 34cm이었다. 길이측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이다.

9호 무덤은 1호 무덤에 비하여 크기가 작으나 둘레선의 모양은 1호와 닮은 둥근 형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유구를 통하여 본다면, 길이는 약 3m, 너비는 약 2.7m 정도라고 추정된다. 1호나 2호 무덤과는 달리 9호 무덤의 뚜껑돌은 2단을 이루고 있었다. 갯돌 안쪽으로 깔린 돌들의 모양새는 세 무덤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9호 무덤에서는 곁돌 밑쪽으로 5개의 돌이 널의 길이측을 가로지르며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 1장으로 된 판자꼴의 뚜껑돌(96×34cm)이 무덤방을 덮고 있었다. 그 속은 비어 있었고, 유물은 나오지 않았다. 돌널의 길이는 70cm, 너비는 25cm, 깊이는 30cm로서 무덤방의 규모는 매우 작았다(사진5).

2. ㄴ구역

이곳의 동쪽으로는 1호 무덤, 동북쪽으로는 2호 무덤, 서북쪽으로는 9호 무덤이 있다. 그리고 동남방향으로는 ㄷ구역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ㄴ구역은 ㄱ구역에 있는 무덤과 뚜렷이 구분된다. ㄴ구역과 ㄷ구역의 사이는 약 40cm쯤 떨어져 있는데, 이는 두 무덤의 영역을 경계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사진7).

형태상 ㄴ구역 유구의 전체 둘레선은 직사각형에 가깝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직사각형은 아니었고, 9호 무덤 근처의 좌우 양쪽은 모가 죽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드러난 무덤자리의 크기는 약 7.5×9.5cm이다. •

ㄴ구역에는 모두 6개의 널이 있었다(사진 6). 이 가운데 6호, 8호, 12호는 본래의 형태가 어느 정도 보존되었으나 4호, 5호, 7호는 파괴되어 있었다. 이들 무덤에서 각 널의 길이측은 ㄱ구역에서 조사된 것과 동일하여 모두가 북북서-남남동 방향이었다.

교란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에는 돌이 깔려 있었으나 여러 층을 이루며 쌓여진 상태는 아니었다. ㄱ구역의 예를 참고한다면 대체로 한 단 정도로 돌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굴조사에 참가했던 이호영 교수는 ㄴ구역 뿐만 아니라 ㄷ구역에서도 여러 무덤방의 뚜껑돌이 찾아진 바 없었는데, 이것은 발같이 등 후대의 영향으로 교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뚜껑돌은 없었으나 확인된 몇몇 널의 크기는 6호 무덤이 길이 140cm, 너비 52cm; 8호 무덤이 길이 140cm, 너비 52cm; 12호 무덤이 길이 110cm; 너비 40cm이었다.

ㄴ구역의 각 무덤방은 거의가 돌덧널 형식이었고, 12호 무덤만이 돌널형식이었다. 12호의 무덤방은 비어 있었다. 무덤방 안에서 출토한 유물은 없었으나 4호, 5호, 7호 무덤의 주변에서는 깨어진 토기 부스러기가 많은 양으로 발굴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다.

3. ㄷ구역

넋가쪽 부분이 없어졌고 일부가 발굴되지 않았으나 유구의 둘레는 직사각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크기는 약 6.5×7m이다. 이곳에서는 3기의 무덤이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3호 무덤(사진7, 그림3)의 형태는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었다. ㄷ구역에서 발견된 무덤방은 모두 돌덧널 형식이었다. 3호 무덤과



4호와 5호 무덤의 유구.



6호, 7호, 8호 무덤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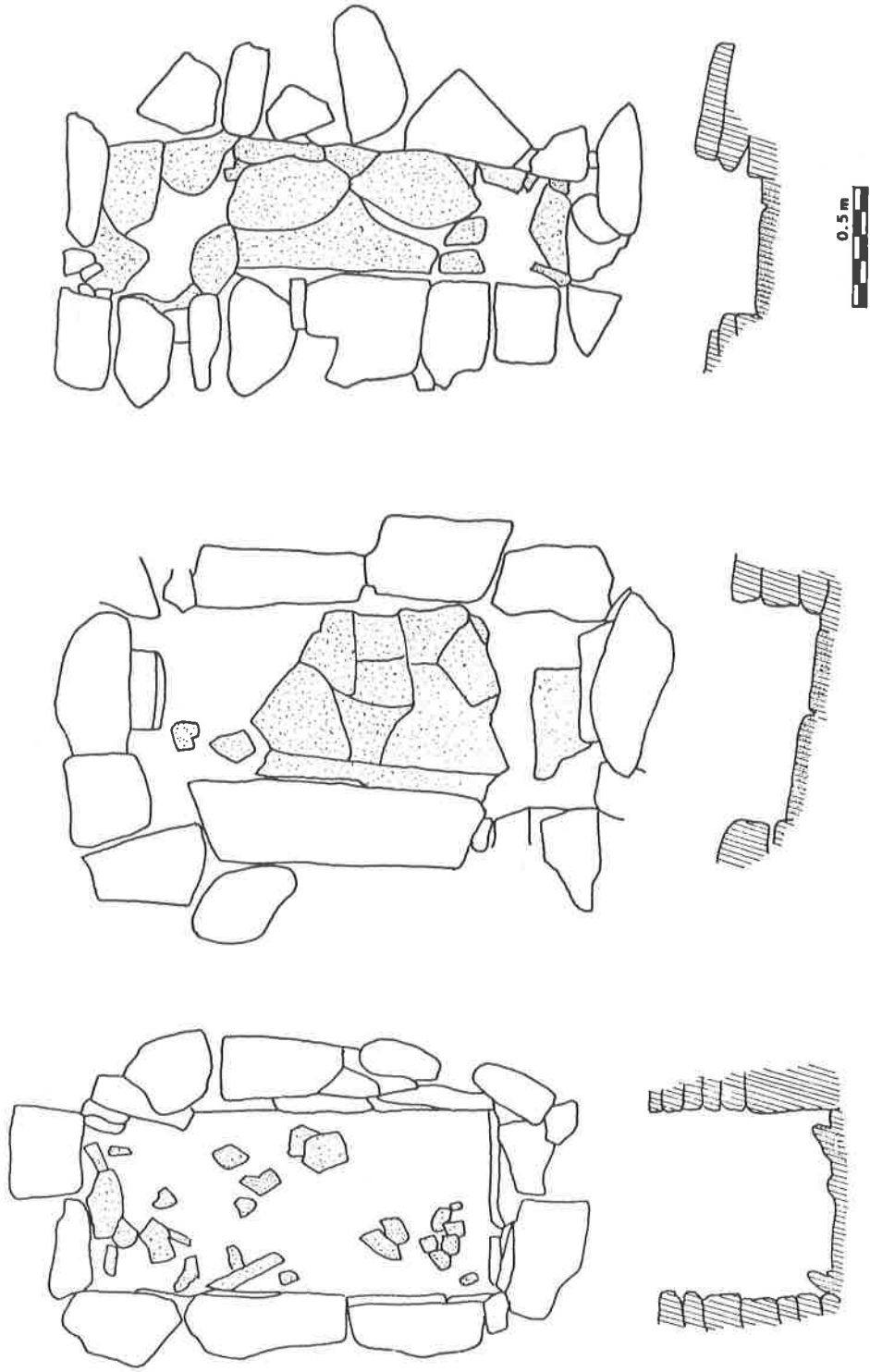


12호 무덤의 돌널식 무덤방.

〈사진6〉 4호, 5호, 6호, 7호, 8호, 12호 무덤의 유구



〈사진7〉 ㄴ구역과 ㄷ구역의 경계부분(위)과 3호 무덤의 유구(아래)



〈그림3〉 1호(왼쪽), 3호(가운데), 6호(오른쪽) 무덤의 유구 평면도

6호 무덤의 바닥에는 판판한 돌이 일부 깔려 있었다. 10호와 11호 무덤에서 토기 조각이 조금 나왔고, 3호 무덤에서는 유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각 무덤방의 규모는 3호가 길이 190cm, 너비 82cm; 10호가 길이 120cm, 너비 55cm; 11호가 길이 140cm, 너비 50cm이었다.

4. 2구역

1호 무덤의 남쪽에 있는 이 구역의 발굴은 매우 좁은 범위(80×80cm)안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체 상황은 현재로서 알아낼 수 없다. 단지 나타난 유구의 위치 또는 방향으로 보아 독립된 구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구분하였을 따름이다.

Ⅲ. 토기의 분석

신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는 화살촉, 가락바퀴, 붉은간토기와 민토기가 있다. 화살촉과 가락바퀴는 각각 1967년과 1968년의 홍수로 인해 유구의 일부가 드러난 냇둑에서 찾아진 것으로 당시에는 신월국민학교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현재 이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유물은 4호, 5호, 7호의 무덤둘레와 D칸에서 나온 200여점(표 1)의 민토기 조각을 비롯하여(사진 8), D칸에서 나온 10여점의 붉은간토기 조각이다(사진 9). 그런데 이러한 토기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돌칸무덤의 널 주변에서 발견되었으며, 무덤방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1호, 10호, 11호에서의 몇조각에 불과하다.

발굴된 토기의 부분별 개체수(표 1)에 있어서는 밀이나 몸체에 비하여 입

표1. 토기의 출토 상황.

	입술부분	몸체부분	바닥부분	모 듬
민토기	22	116	91	229
붉은간토기	0	9	1	10
모 듬	22	125	92	239

술부분의 수가 월등하게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집자리나 무덤에 관계없이 민토기를 반출하는 유적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어 주목을 끈다. 반면에 신석기시대의 무늬토기 유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밑부분의 개체수가 유난히 적게 나타나는 예가 많아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먼저 민토기의 제작방법과 생김새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붉은간토기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여러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를 조사한 결과, 제작방법과 생김새는 무덤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같은 무덤자리에서 나온 민토기 가운데는 서로 맞붙는 것이 제법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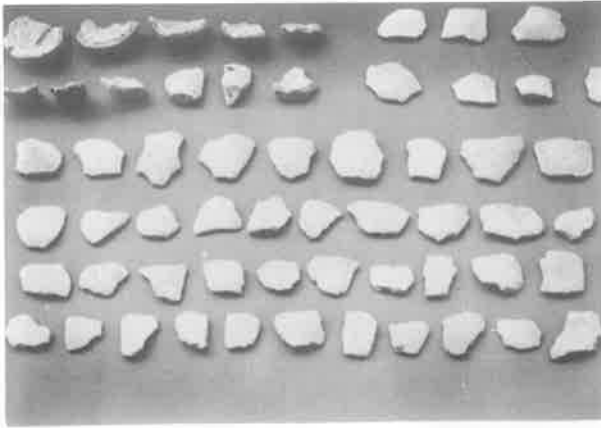
1. 민토기

가. 제작방법

1) 바탕흙과 비짐

바탕흙의 주된 염토광물 성분은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⁴⁾ 계통으로 추정된다. 비짐으로는 흑운모편암의 알갱이와 토기가루가 많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비짐은 주변 지역에서 쉽게 얻어 사용된 듯하다. 그밖에 유기물이 타버려서 생긴 굼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유기물이 비짐으로 쓰여졌는지에

4) 이것은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토기 제작에 흔히 쓰여졌다(최몽룡, 1981:1983; 이기길, 1986). 이 광물은 수축율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때때로 토기의 흙이 엉긴듯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4호 무덤의 널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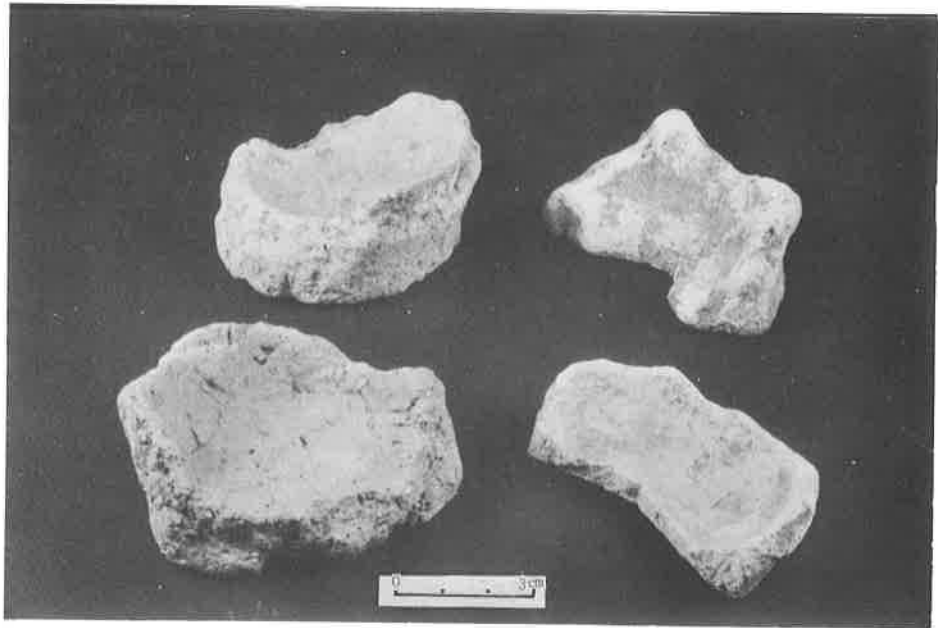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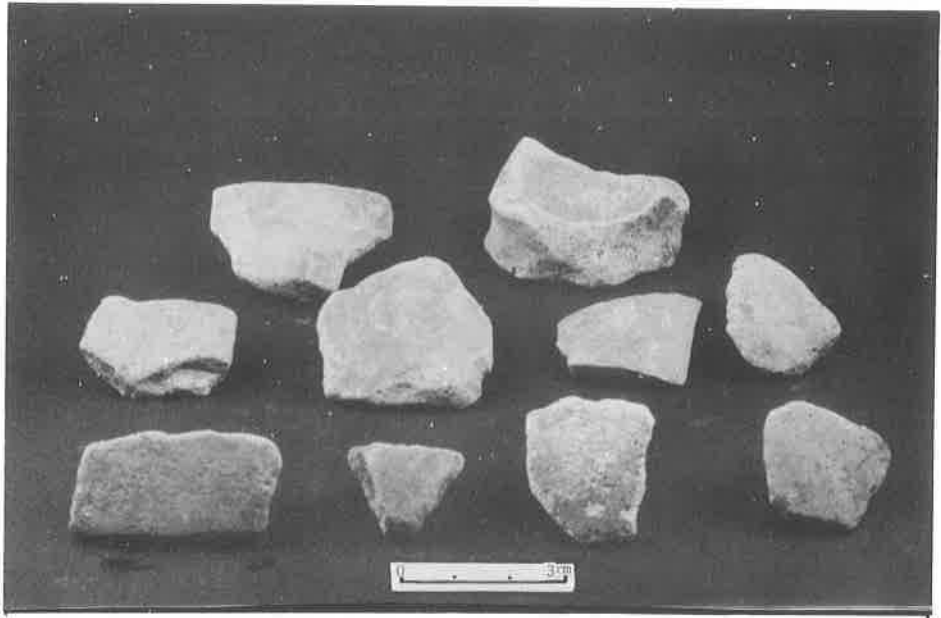


5호 무덤의 널 주변.



7호 무덤의 널 주변.

〈사진8〉 4호,5호,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토기.



〈사진9〉 D 칸에서 나온 붉은간토기(위)와 민토기(아래).

관해서는 좀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토기의 박편조사 결과(표 2)에 의하면, 바탕흙의 염토광물이 약간씩의 열변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집의 광물로는 석영이 가장 많으며 장석, 흑운모, 녹렴석(epidote) 따위도 포함되어 있다. 석영 알갱이의 뉘음새는 다양하여 둥근(rounded), 조금 둥근(subrounded), 조금 모난(subangular), 모난(angular) 것 등이 고루 보여진다. 만약 바탕흙 자체에 그러한 모양의 석영 알갱이가 들어 있지 않았다면, 비집의 석영 성분은 강가에서 채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의하여 직접 깨뜨려져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2. 토기의 박편분석 결과

구역	시료번호	바탕흙(matrix)	비집(grains)
4 호 무 덤	4-32	약간의 열변성을 받았고, 0.03~0.04mm 크기의 석영 함량이 10% 안팎.	석영의 크기는 주로 0.3~0.4mm이고, 카리장석의 풍화가 심하며, 사장석과 녹렴석이 있음.
	4-46	위와 같음	열변성을 조금 받은 0.3~0.4mm의 석영이 주를 이루고, 장석과 흑운모, 녹렴석 등이 섞여 있음.
5 호 무 덤	5-12	불투명한 갈색으로 약간의 염토광물이 관찰되었고, 0.1mm 안팎의 석영이 있음.	조금 모난 또는 모난 모양의 석영 일부가 돌조각 형태이고, 약간의 장석, 전기석, 녹렴석이 있음.
	5-26	불투명한 갈색으로 열변성을 받았고, 일부가 약간 녹은 상태임.	대부분 돌조각 형태이고, 석영은 조금 모난 또는 모난 모양이며, 많은 녹렴석과 약간의 장석이 있음.
7 호 무 덤	7-18	위와 같음.	석영이 많고 조금 둥근 형태이며, 흑운모편암이 있음.
	7-25	5호 무덤의 5-12와 같음.	모난 형태의 석영이 증가하고, 반암이 있음.
D칸	D-2181 (붉은간토기)	5호 무덤의 5-12와 같음.	5호 무덤의 5-12와 같음.

2) 만든 기술

태림질⁵⁾: 몸체부분은 테쌓기로 만든 것 같고, 바닥을 비롯하여 몸체와 연결되는 부분은 비지기로 만들어졌다고 여겨진다. 즉 바닥과 몸체가 이어지는 부위의 두께는 두터우며, 서로를 맞붙일 때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손누름자국이 두드러진다. 토기 가운데는 몸체를 만든 다음 다시 그 위에 한줄의 띠를 올려 쌓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오므려 만든 입술도 있었다. 기술상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므린 형태의 입술이 비교적 쉽게 만들어지리라 보여진다. 유물에 따라서는 입술을 오므리도록 하기 위하여 눌렀던 손누름자국이 입술 안쪽 벽면에서 관찰되기도 하였다.

끝손질.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토기의 안팎면을 물손질로 다듬는 방법이며, 둘째는 솔 또는 대칼 따위의 용구로 다듬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에는 안팎면을 모두 손질한 것과 한 면만을 손질한 것으로 나뉘어지며, 절면의 손질자국에 나타난 결은 대체로 고르면서도 같은 방향을 유지한다. 토기의 면을 다듬는데 이용된 용구는 토기면에 나타난 특징으로 보아 두 가지 종류는 넘는 듯하다. 대칼 자국의 끝은 모나면서 너비가 좁은 형태와 끝의 가운데쪽이 약간 둥근 모양이면서 너비가 다소 넓은 형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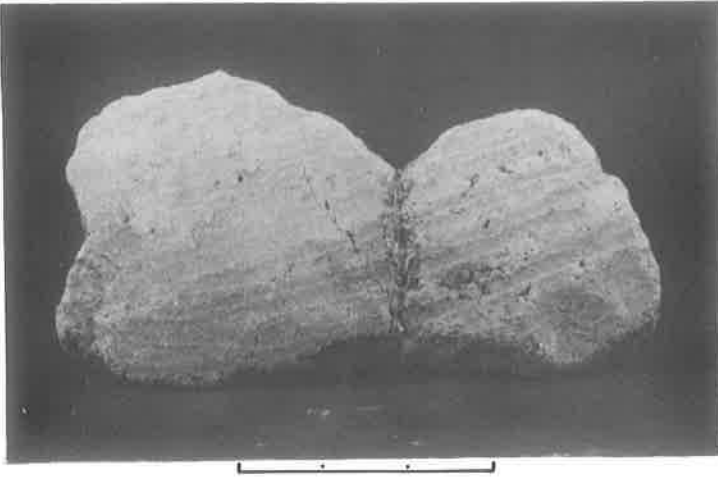
빛깔. 이곳의 토기들은 대부분 산화가 잘된 편으로 빛깔은 붉은갈색과 황갈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5호와 7호 무덤에서 나온 3점의 토기 안벽에는 점명이기 묻은 흔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기물이 탄화⁶⁾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께. 민토기의 부위별 두께는 표 3, 4, 5와 같다. 두께 가운데 입술부분은 아가리로부터 4c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잦 값이다. 입술의 두께는 5.0~11.0mm에

5) 그릇을 빚을 때 쌓아 올리는 방법(정명호, 1973)을 말하며, 태림질(김진우, 1972)이라고도 한다.

6) 토기의 절면에서 때때로 관찰되는 이런 물질을 분석하여 음식물로 추정한 연구(이영남, 1988)가 있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토기의 쓰임새가 더욱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사진10〉 민토기의 겉면에 나타난 다듬은 자국

(유물번호 : ①4-41, ②4-10, ③4-53, ④5-42, ⑤7-3).

각 유물 아래에 표시된 눈금은 3cm를 가리킴.

걸쳐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9.0~10.0mm 사이에 든다. 몸체부분의 두께는 5.0~13.0mm 사이에 분포하며, 7.0~10.0mm가 대부분이다. 밑부분의 두께는 6.0~24.0mm로서 그 분포가 넓으나, 대체로 7.0~13.0mm 사이에 속하는 것이 많다.

표3. 민토기의 입술부분 두께(t)

두께(mm)	5<t≤6	6<t≤7	7<t≤8	8<t≤9	9<t≤10	10<t≤11
갯수	1	4	6	2	6	3

표4. 민토기의 몸체부분 두께(t)

두께(mm)	5<t≤6	6<t≤7	7<t≤8	8<t≤9	9<t≤10	10<t≤11	11<t≤12	12<t≤13
갯수	8	12	21	34	25	10	4	2

표5. 민토기의 밑부분 두께(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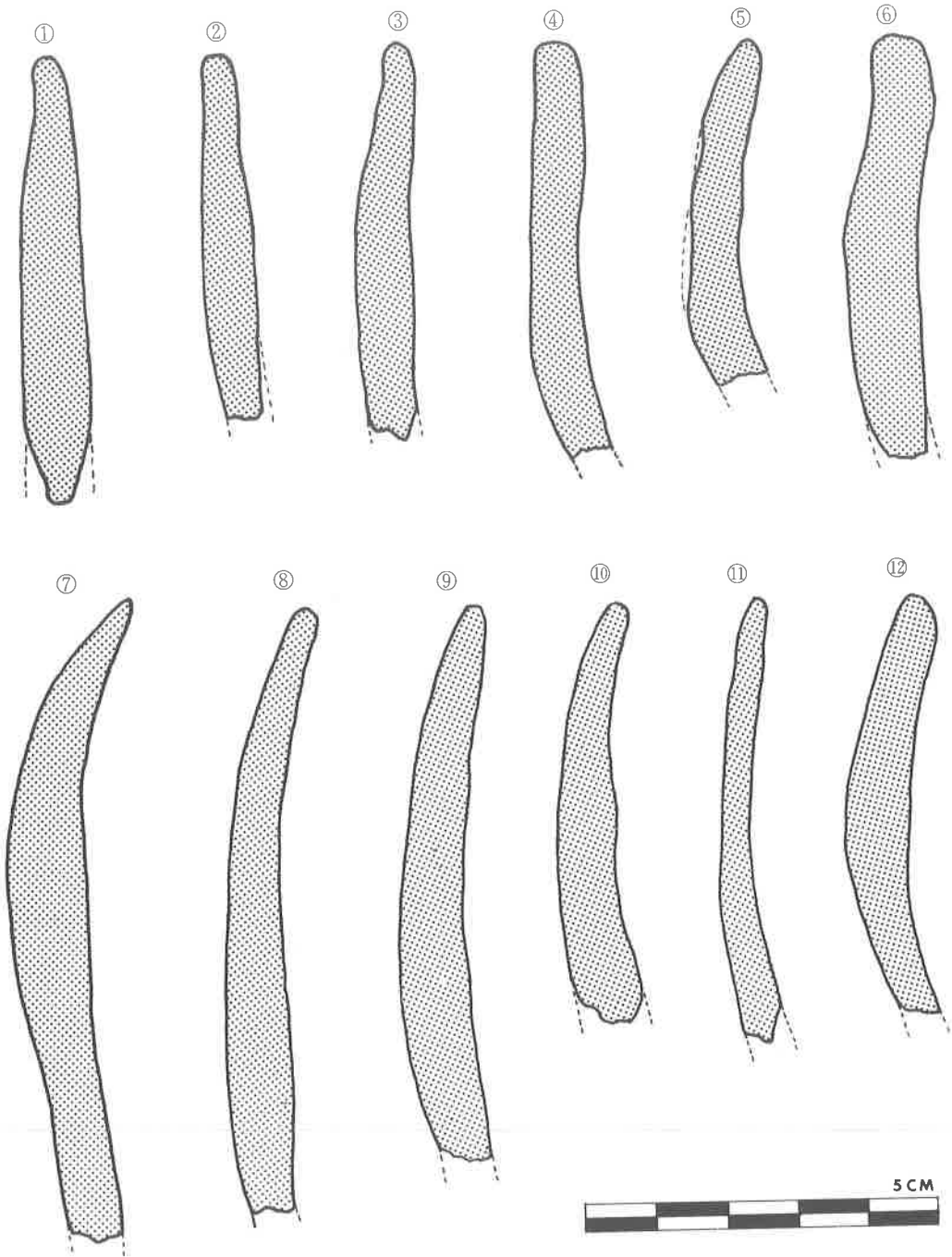
두께(mm) 갯수	두께(mm) 갯수	두께(mm) 갯수	두께(mm) 갯수
5<t≤6 0	8<t≤9 6	11<t≤12 2	14<t≤15 4
6<t≤7 1	9<t≤10 6	12<t≤13 7	15<t≤16 1
7<t≤8 6	10<t≤11 6	13<t≤14 2	23<t≤24 1

나. 토기의 형태

1) 입술

생김새. 유적에서 나온 22점 중에서 안으로 뚜렷하게 오므러진 형태가 3점 있으며, 곧은 입술이 15점 있고, 중간 형태도 몇점 보인다(그림 4). 민토기시대의 늦은 시기에 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바라진 입술은 나오지 않았다.

지름. 지름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6점 있었다. 이 중에서 4호 무덤의 것(3점)은 길이가 각각 16.7cm, 17.8cm, 25.4cm이며, 5호 무덤의 것(1점)은 17.0cm이고, 7호 무덤의 것(2점)은 13.8cm와 14.3cm로 나타났다. 완형의 토기가 한 점도 없는 까닭에 입술지름과 밑지름과의 상관관계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림4〉 민토기의 곧은 입술과 오므린 입술

(유물번호 : ①5-19, ②4-25, ③5-30, ④4-50, ⑤7-27, ⑥4-7,
⑦7-20·39, ⑧5-1·30, ⑨5-4, ⑩5-7, ⑪5-2, ⑫7-29).

2) 밀

생김새. 형태별로 납작밀 대야굽, 납작밀 모난굽, 들린밀 모난굽의 3종류가 있다(사진11~15, 그림 7~16). 이 중에서 납작한 바닥의 모난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6). 들린밀은 4호 무덤에서 나온 1점이 있을 뿐이다. 유물에 따라서는 바닥이 조금 들린 것도 있는데,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모양인 것 같다. 토기 밑부분의 윗면과 아랫면에서는 손누름자국이 자주 관찰된다.

표6. 민토기의 밑부분 형태

형 태	납작밀 대야굽	납작밀 모난굽	들린밀 모난굽
갯 수	8	67	1

지름. 토기의 밑부분이 적어도 1/4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름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복원된 지름은 대체로 7.0~10.0cm 사이의 것이 많았다(표 7).

표7. 민토기의 밑부분 지름(d)의 크기

크 기	$6 < d \leq 7$	$7 < d \leq 8$	$8 < d \leq 9$	$9 < d \leq 10$	$10 < d \leq 11$	$11 < d \leq 12$
갯수(mm)	1	12	9	13	0	2

바닥에서 위로 그릇이 벌어지는 각도. 이 값은 밀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cm 이상되는 토기만을 가지고 재었다. 벌어진 각도는 일반적으로 90~120° 사이에 드는데, 90~110° 사이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난다(표 8).

표8. 바닥에서 위로 그릇이 벌어지는 각도(a)

각 도	$90 < a \leq 100$	$100 < a \leq 110$	$110 < a \leq 120$
갯 수	5	4	2

2. 붉은간토기

모두 10점의 붉은간토기 조각이 신월 유적의 D칸에서 찾아졌다. 조각의 크기는 대개 5cm를 넘지 않으며, 납작밀이 1점 나와 주목을 끈다(사진 15).

가. 제작방법

1) 바탕흙과 비집

모래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만 민토기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굽은 입자가 적은 경우에는 고운 느낌을 주며, 그릇의 두께도 다소 얇게 나타난다.

2) 만든 기술

이들 토기는 손으로 빚어 만들었으며, 민토기와 같은 방법으로 다듬어졌다. 붉은칠이 드문드문 벗겨진 부분에 솔질자국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미루어, 붉은칠의 흡착력을 높이려고 그와 같이 다듬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상태로 볼 때, 토기 겉면의 붉은칠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 하나는 칠해진 면이 매끄럽게 윤이 나는 것으로서 아직도 붉은칠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런 종류의 토기는 바탕흙이 비교적 곱고, 그 두께 또한 얇다. 두번째는 붉은칠이 많이 벗겨지고, 윤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그릇의 두께가 다소 두터워 마치 민토기와 같이 보이는 것이 있다. 따라서 붉은칠을 먼저하고 구운 것과 구운 다음에 붉은칠을 한 방법(이용조·신숙정, 1987)이 신월 유적의 붉은간토기 제작에도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토기의 형태

곧은 입술에 둥근밀이나 납작밀을 가진 목단지 모양으로 추정되는 그릇이 있다. 1점의 토기밀은 모난굽으로 두께는 1.1cm이며, 밀지름은 6.0cm 정도이

다. 이 밑과 동일한 개체로 보이는 몸체부분의 두께는 7.0~8.0mm이다. 몸체의 두께가 4mm를 넘지 못하는 유물도 보인다(표 9).

표9. 붉은간토기의 몸체부분 두께(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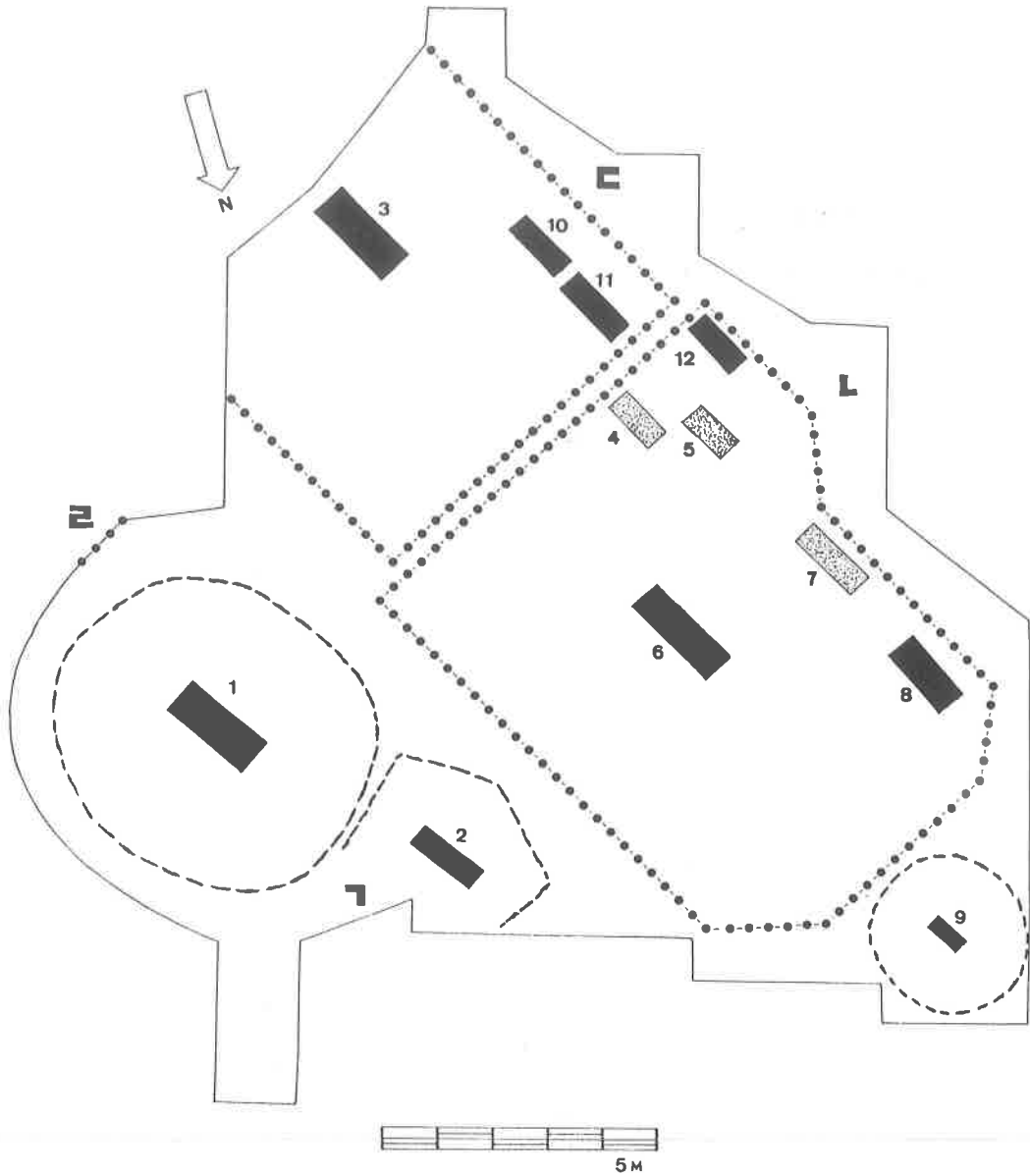
두께(mm)	$3 < t \leq 4$	$4 < t \leq 5$	$5 < t \leq 6$	$6 < t \leq 7$	$7 < t \leq 8$	$8 < t \leq 9$
갯 수	1	0	0	4	3	1

IV. 조사 자료의 비교 검토

1. 무덤의 구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신월 유적에서 발굴된 무덤은 구조 및 형식이 독특하다. 첫째, 한널무덤과 여러널무덤이 같은 장소에 공존하고 있으며, 구역과 무덤에 따라 둘레선의 모양도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다(그림 5). 널의 갯수에 있어서 ㄱ구역은 한널무덤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ㄴ과 ㄷ구역은 여러널무덤 형식이다. 한편 한널무덤의 둘레는 둥근 또는 모난 형태이며, 여러널무덤의 영역은 네모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각 무덤방의 길이축은 모두가 북북서-남남동으로 사천강의 물흐름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의 상황을 검토할 때, 각 무덤의 둘레선은 축조 당시부터 본래 그러했으며, 후대의 영향을 입어 그 기본형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둘째, 구역별로 둘레선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 구역(ㄱ, ㄴ, ㄷ)의 무덤 표면은 판판한 모양의 돌들이 덮여진 돌간무덤(敷石墓, stone floored tomb)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무덤의 형태는 여러 단으로



<그림4> 무덤자리의 둘레선과 널의 방향
 (4호, 5호, 7호 무덤은 파괴되어 있었으나 조사자료에 따라 위와 같은 추정이 가능함).

돌을 쌓아올려 만든 돌무지무덤(積石墓, stone mound tomb)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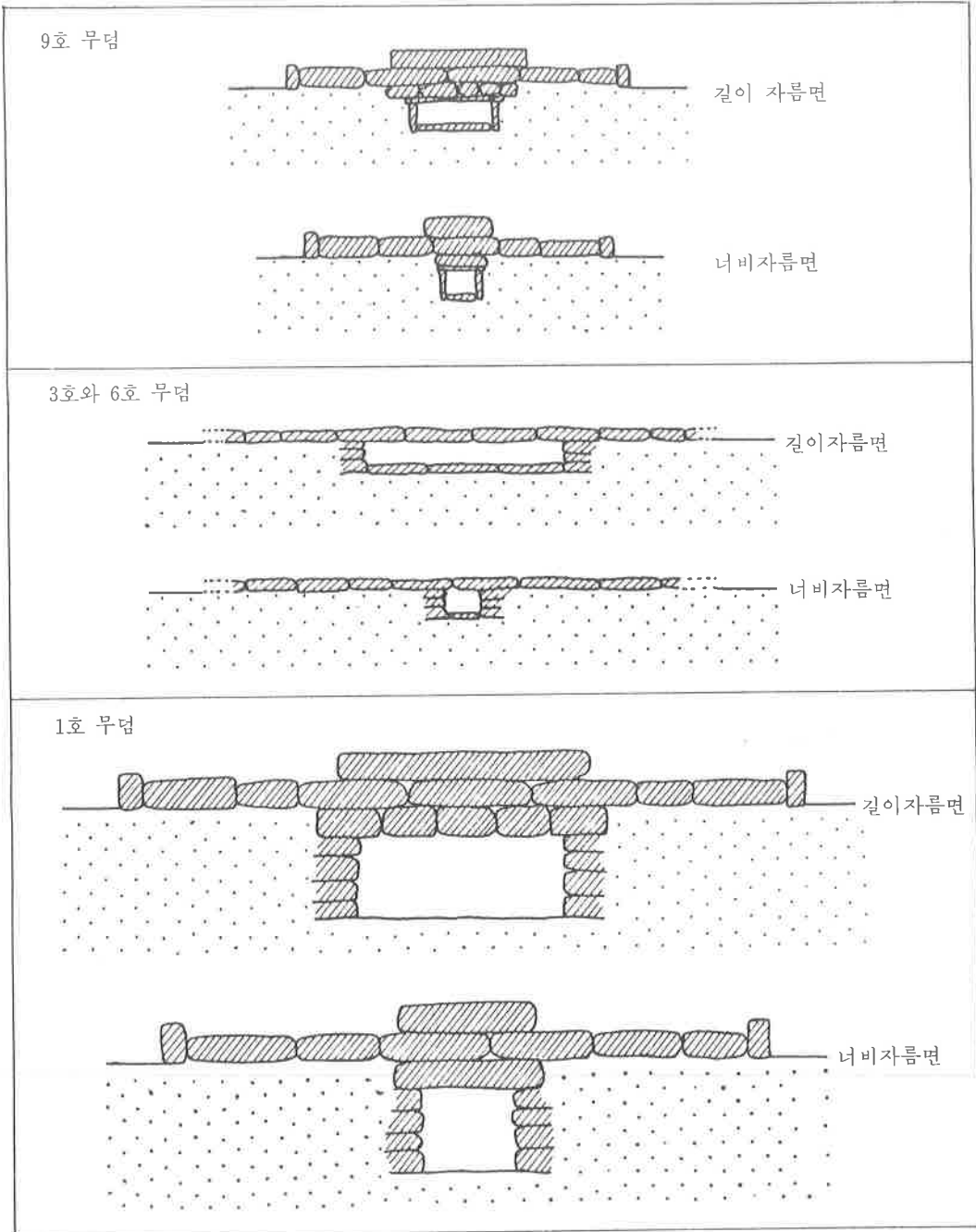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다른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서 신월의 청동기시대 무덤에 나타난 위와 같은 특징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돌간무덤의 둘레선은 비교적 단일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경남 진양군 대평면 한들 유적(안춘배, 1977; 조유전, 1979)과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유적(한병삼·김중철, 1974) 등에서 알려진 돌간무덤은 네모 형태로 나타나며, 둥근 또는 다섯모가 넘는 형태의 것은 신월유적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돌무지무덤(김재원·윤무병, 1967)이라기보다는 돌간무덤(임세권, 1984)으로서의 가능성이 짙은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샘밭 유적의 돌무덤 둘레선도 네모로 이루어진다. 돌간무덤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제주시 용담동 유적의 남쪽 돌무덤⁸⁾은 그 무덤자리의 전체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남북을 가로지르는 돌들의 놓임 상태로 보아 네모꼴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돌간무덤에 있어 한 무덤자리에 들어 있는 널의 갯수는 대체로 적다. 한들 유적, 상자포리 유적, 샘밭 유적은 한널무덤이 기본이며, 이 가운데 샘밭 B호 무덤의 일부만이 두널무덤 형식이다. 제주시의 용담동 유적 남쪽에서는 현재 3개의 돌덧널 무덤이 알려졌다. 이미 말한 바 있듯이 신월 유적의 ㄱ구역에서는 여섯널이 한 무덤자리에 분포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에 따르면, 한 무덤 구역 안에 위치한 널의 갯수는 돌간무덤보다 고인돌무덤에서 보다 자주 관찰되었다. 황북 황주군 침촌리 긴동(황기덕, 1963)

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단 정도로 돌을 깔아 만든 burial with stone-covers 라는 개념 (Sulimirski, 1970. p.20)을 돌무지무덤(積石塚)으로 처리(이형구, 1988. 30쪽)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8) 이 유적의 보고서(이청규, 1986)에서는 일단 고인돌무덤의 하부구조일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앞으로의 조사연구에 의해서 확실한 내용이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림6〉 신월 유적에 나타난 돌간무덤의 형식.

과 천진동(황기덕·리원근, 1966), 황북 연탄군 오덕리 평촌(석광준, 1974)의 고인돌무덤에서 그와 같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유구의 원래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 있었던 ㄱ구역 무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돌이 깔려진 표면의 한복판에 또다시 판석 한장이 놓여 있어 무덤방의 위치를 간접으로 나타내는 점이다. 1호 무덤에 있는 판석은 너비가 약 1.2m, 길이가 약 2.0m인데 몇 조각으로 깨어진 상태이었다. 2호와 9호의 경우에는 일부가 깨어져 없어졌지만 현재 남아 있는 크기는 2호가 0.4×1.4m, 9호가 0.5×0.8m이었다. 대체로 이들 판석의 두께는 20cm 이내이다. 그리고 이들 판석의 길이측은 널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어 널 위치의 표시와 더불어 널을 보호하는 역할도 동시에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형식의 유구가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샘밭 유적의 C호 돌무덤(김재원·윤무병, 1967)에서 찾아졌다.

한편, 한강 유역의 중도(노혁진·최은주, 1982; 지건길·이영훈, 1983; 최복규, 1984; 노혁진, 1986), 강원도 춘성군 샘밭(김재원·윤무병, 1967)과 신매리(최영희·노혁진, 1986), 광주시 충효동(최몽룡, 1979),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임효택·곽동철·조현복, 1987), 경남 진양군 대평면 한들(조유전, 1979), 황북 황주군 침촌리 긴동(황기덕, 1963)과 신대동 및 천진동(황기덕·리원근, 1966), 황북 연탄군 오덕리 평촌(석광준, 1974) 등지의 유적 가운데 일부에서는 무덤 구역이 길으로 드러나도록 표시하려는 의도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로 지표에 돌을 깔거나 얇게 쌓아 둘러, 갯돌의 모양을 네모지게 또는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만들고, 그위에 덮개돌을 놓은 고인돌무덤이 발굴되어, 신월 유적의 무덤 형식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신월 마을 주변의 유적 분포 상황은 이곳의 들간무덤이 고인돌무덤의 변형된 형식이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무덤이었음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소곡리와 그 인접지역인 학촌리의 들판에서는 지상으로 뚜렷하게 노출되었던 고인돌이 10여기 이상 발견(김상조, 1968)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지정리 작업으로 이곳의 고인돌이 사라져버렸으

므로 현재 이 지역의 두 무덤 형식을 비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⁹⁾.

신월 유적에서는 무덤방을 덮고 있는 뚜껑돌이 1~2단으로 덧놓여 있었다(그림 6). 7구역에서 비교적 잘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한들 유적의 돌칸무덤(조유전, 1979)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뚜껑돌 아래에 무덤방을 만들었던 방법은 일정하지 않아 돌널과 돌덧널 형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신월에서의 여러널무덤은 거의 대부분이 돌덧널 형식이지만 한널무덤에서는 3기 중에 2기가 돌널 형식이었다. 한들 유적(조유전, 1979)은 돌덧널식이고, 상자포리 유적(한병삼·김종철, 1974)은 돌널식이며, 샘밭유적(김재원·윤무병, 1967)에서는 두 형식이 모두 나타난다. 이들 무덤에 있어서 돌널식 무덤방의 규모는 돌덧널식보다 대체로 작은 편이다.

신월 유적에서 관찰된 무덤방의 크기는 다양하다. 전체 12기 가운데 9기에서 확인된 각 무덤방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10).

표10. 무덤방의 형식과 크기

	1호	2호	3호	6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형식	돌덧널	돌널	돌덧널	돌덧널	돌덧널	돌널	돌덧널	돌덧널	돌널
길이(cm)	180	140	190	170	140	70	120	140	110
너비(cm)	80	34	82	52	60	25	55	50	40
깊이(cm)	75	47	30	20	45	30	30	35	40

각 무덤방의 길이는 70~190cm 사이에 들고 있는데, 이것은 크기에 따라 70cm, 110~140cm, 170~190cm별로 묶음이 가능하다. 길이가 170~190cm에 해당하는 널은 너비가 52~82cm이며, 110~140cm인 경우에는 너비가 34~40cm이다. 이 가운데서 170~190cm의 크기에는 바로펴묻기¹⁰⁾ 또는 굽혀묻기에 의하여 성인

9) 소곡리의 고인돌에 관해서는 “길이 2.4m, 높이 2m의 남방식 지석묘가 10m의 간격으로 2기가 있다”라는 기록(문화재관리국, 1977)이 보인다.

10) 청동기시대에 바로펴묻기한 무덤은 서포항(김용간·서국태, 1972), 황석리(나세진·장신요, 1967), 황석리 B 지구(이용조·신숙정·우종윤, 1984) 등이 있다. 이곳으로부터 나온 성인의 키는 140cm 이상이다.

의 주점을 물을 수 있겠으나, 140cm 이하에서는 바로펴묻기가 실제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무덤이 어린아이나 다 크지 않은 젊은이의 주점을 위하여 만들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덤방의 길이가 140cm 이하인 것이 신월 유적에서 6기나 되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 결국 규모가 작은 이들 무덤은 굽혀묻기¹¹⁾, 세골장에 의한 2차장, 화장 등의 장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점에 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크기가 가장 작은 9호 무덤의 널은 성인의 주점을 굽혀묻기로 하기에 너비가 너무 비좁은 듯하다. 그렇다고 어린아이의 무덤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2. 토기에 대한 고찰

소곡리의 신월 유적에서 나온 유물의 종류는 비교적 단순하며, 토기를 제외한 유물의 내용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금은 민토기와 붉은간토기의 조각들만 있다. 그런데 이것의 대부분은 무덤자리의 널 주변에서 나와 무덤방의 껍질거리로 쓰여진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4호, 5호, 7호의 무덤 둘레와 D칸에서 찾은 토기에서는 풍화를 받은 흔적이 자주 관찰되었다. 그래서 토기의 겉면이 물에 씻긴 듯한 느낌을 주며, 깨어진 모서리도 날카롭지 못하고 상당히 무더진 모습이다. 토기에 나타난 표면의 닳음새는 이들 유물이 물의 영향을 받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토기 조각들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흘러들어 왔을 가능성도 생각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무덤자리에서 나온 토기 가운데는 서로 붙는 것들(특히, 바닥부분)이 제법 있

11) 광주시 충효동 6호 고인돌(최몽룡, 1979)에서는 길이 123cm, 너비 48cm; 충북 증원군 하천리 D지구의 고인돌(김병모·최호림·김명진·심광주, 1984)에서는 길이 137cm, 너비 40~50cm의 유구 안에 굽혀묻기 형식으로 사람을 넣어 실험을 한 바 있다.

으며, 만약 물의 작용으로 외부에서 끌려왔다면 어떻게 위의 세 무덤 둘레에만 모여질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곳으로부터의 이동보다는 발견된 곳 자체에서 입은 물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은 유적의 층위(2층) 성격과 퇴적의 형성 요인을 통해서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토기를 만드는데 쓰여진 흙에는 화강암 부스러기가 많이 섞여 있었고, 겉면을 다듬었던 흔적으로는 대칼 또는 솔질자국과 물손질자국이 보이며, 밑부분에서는 손누름자국이 자주 나타났다. 입술은 오므린 것보다는 거의 곧은 모양을 가진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릇의 전체 생김새는 밑지름이 대략 8~10cm인 바리 형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납작밀의 붉은간토기가 무덤 주위에서 나와 주목을 끈다.

토기 분석¹²⁾에는 영산강 유역, 혼암리, 양평리 B 지구, 황석리, 대평리 유적의 유물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와 비교하였다. 표11에 있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 유적에서 나온 민토기와 붉은간토기의 바탕흙, 끝손질, 생김새 등은 청동기시대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유물만을 가지고는 신월 무덤의 연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지,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에 비하여, 이용된 바탕흙이 덜 정선되었고, 바라진 입술의 토기도 없는 점에 비추어보아, 아주 늦은 시기에 속하는 유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선사시대 무덤의 널 옆에서는 가끔 토기 조각이나 석기류 등이 적지 않은 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① 무덤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풀어진 제연(祭宴)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보는 해석(김재원·윤무병, 1967; 방

12) 토기의 과학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X선회절분석(X-ray diffraction), 발광분광분석(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전자주사현미경분석(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전자현미경분석(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암석분석(Petrological analysis), 다시굽기(Refiring), 초음파진동세척(Ultra-sonic washing), 소성수축(Firing shrinkage)을 이용한 것들이 있다.

표11. 토기 분석 자료의 비교

유적	토기	분석방법	비고
영산강 유역의 송암동·우치동·충효동 (Choi, 1981)	민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선회절분석 • 발광분광분석 • 전자주사현미경분석 • 암석분석 	염토 광물로 몬모릴로나이트를 확인하고, 석영·장석·백운모등의 광물을 찾아냄. 석영과 장석의 합량 비율은 60~75(%) : 35~40(%)이며, 토기는 낮은 온도(573℃ 이하)에서 구워진 것으로 추정.
혼암리 (최몽룡·박양진, 1985)	민토기와 붉은간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현미경분석 • 암석분석 	입자는 조금 모난 또는 모난 형태이며, 붉은간토기의 광물 입자 합량은 민토기보다 적어 정선된 바탕흙으로 붉은간토기가 만들어 졌음을 시사함. 석영의 합량은 장석보다 많음. 구멍토기와 민토기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양평리 B지구 (Choi, 1983)	민토기와 붉은간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선회절분석 • 발광분광분석 • 전자주사현미경분석 • 암석분석 	바탕흙은 일라이트(illite)와 몬모릴로나이트로 구성됨. 광물에는 석영과 장석이 많으며, 붉은간토기의 경우에는 석영이 훨씬 많고, 모두 16개의 원소를 확인하였음. 구운 온도는 573℃ 이하로 추정.
양평리 B지구 (최몽룡·윤동석·이영남, 1985)	붉은간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선회절분석 • 전자주사현미경분석 	붉은간토기의 성분은 결정체가 형성되지 않은 철이 다량 함유된 회장석(Anorthite, CaAl ₂ Fe ₄ O ₁₀)임. 따라서 토기를 구운 다음에 붉은철을 했던 것이 밝혀짐.
황석리 (이용조·신숙정, 1987)	붉은간토기와 가지무늬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선회절분석 • 초음파진동세척 • 성분분석 • 암석분석 • 다시굽기 • 소성수축 이용방법 	광물 입자는 대개 모난 형태이며, 주로 석영·장석·운모가 들어 있음. 붉은철의 주성분은 산화제2철(Fe ₂ O ₃)임. 이 철은 두 가지 방법(즉 굽기 전과 구운 다음)으로 입혀졌고, 구운 온도는 700~750℃로 추정됨.
대평리 (이용조·신숙정, 1987)	붉은간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석분석 	바탕흙에 약 30~40%의 광물 알갱이가 섞여 있는데, 광물은 대부분 석영·장석·운모로 구성됨.

선주, 1968; 임세권, 1976; 최몽룡, 1978; 이용조, 1980; 서성훈·이영문, 1983)과 ② 주검을 묻은 다음 그 곁에 장대를 박고, 거기에 죽은 사람이 가졌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서, 걸어 두거나 혹은 그대로 무덤 앞에 놓아두는 풍습의 결과로 보는 견해(황기덕·리원근, 1966)가 있다.

의식을 행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는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에서도 나타난다. 기원전 23,000년으로 평가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돌니베스토니스(Dolni Vestonice) 유적의 불뎀자리(Jelinek, 1984)에서는 흙으로 빚어 구워 만든 여러 동물과 사람의 형태조각품이 부서진 상태로 많이 나와 그런 유형의 의식이 당시에 베풀어졌음을 간접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일본의 신석기시대 조빈(鳥濱)유적에서는 제사에 쓴 다음 깨뜨린 것으로 보이는 붉은칠토기의 조각이 수백점 발굴된 바 있다(森川昌和, 1987).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유적에서 제의와 관련된 의식의 결과로 유물이 파괴되었던 흔적이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청동기시대로 넘어와서는 그러한 성격의 유물이 몇몇 유적에서 찾아지고 있다. 황북 황주군 침촌리의 신대동과 극성동(황기덕·리원근, 1966), 충북 제원군 황석리와 전남 곡성군 공북리(김재원·윤무병, 1967), 전남 강진군 영북리(서성훈·이영문, 1983)등지의 고인돌 무덤 주변과 경남 진양군 대평면 한들의 돌간무덤(조유전, 1979)주변에서도 일부러 깨뜨려 뿌린듯한 토기 부스러기와 함께 그밖의 파손된 유물이 발견되었다. 춘천시 중도의 11호 고인돌(지진길·이영훈, 1983)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특징이 엿보인다. 그리고 시기가 내려와서는 백제, 가야, 신라 시대의 일부 유적(윤세영, 1987)에서도 무덤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괴된 상태로 애초부터 넣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토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 석촌동 4호 돌무덤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출토한 조각들이 서로 붙고 있어, 고의로 토기를 깨어서 돌무지 위에 뿌린듯한 느낌을 준다(석촌동발굴조사단, 1987).

그러면 무덤을 쓰는 동안 그릇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유물을 깨뜨려 뿌리

거나 묻는 행위는 제의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죽음과 주검 또는 죽은 자의 영혼에 대처하는 산 자의 행동의식을 통하여 풀이해 보기로 하자.

흔히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양면성을 지닌다(한상복·전경수, 1969). 첫째는 죽은 자의 재생을 기원하거나 또는 죽었어도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세상과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관념이며, 둘째는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현세를 단절시켜 죽은 영혼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따라서 죽은 자와 그 영혼의 집으로서 무덤이 만들어져 께묻거리의 형식으로 죽은 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이필영, 1987)가 첫번째 관념 속에서 나타나고, 죽은 자와 그 혼령으로부터 모든 관계를 끊기 위한 분리의례(Van Genep, 1908 : 서영대 옮김, 1986)가 두번째의 관념 속에서 베풀어진다. 죽은 자가 사용하던 물건, 곧 부정을 닦을지도 혹은 죽은 자의 혼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를 물건을 치워 없애거나 불태워 버림으로써 분리의례가 실행된다(Van Genep, 1908 : 서영대 옮김, 1986). 상여가 집을 떠나면 죽은 사람이 쓰던 일상용품을 비롯하여 귀신단지, 화로, 재떨이, 초흔옷 등을 깨어 버리거나 불태워 없애는 우리 사회의 장례(장철수, 1977)에서도 그러한 의례의 한 속성이 보여진다. 신월 유적의 세 무덤가에서 많은 양으로 나온 토기 조각들도 위와 같은 의미로 분리의례를 치르는 동안에 깨어지고 뿌려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에서 알려진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그 무덤을 쓰는데 이용되었던 재료에 따라 돌무덤, 독무덤, 움무덤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무덤 가운데 가장 널리 조사된 것은 돌무덤 종류로서 고인돌무덤, 돌

널무덤, 돌무지무덤을 비롯하여 돌칸무덤이 거기에 속한다.

여러 형태의 돌무덤 중에서 고인돌무덤과 돌무지무덤은 그 형태가 흔히 지상에 드러나 있었던 까닭으로 유적으로서의 확인 작업이 비교적 쉬웠던 반면에, 돌널무덤과 돌칸무덤은 대부분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제약으로 인하여 그들의 수량을 대강이나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리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돌칸무덤의 경우에 있어서는 돌무지무덤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거나 또는 특수한 무덤의 형태로서 간단히 처리되는 경향이 짙어, 그 무덤의 성격이 지금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신월 유적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묘제로서의 돌칸무덤 내용이 보다 분명해졌을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몇몇 돌칸무덤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월 유적에 있어서도 발굴된 유물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무덤 자체가 지표에 드러나 있게끔 만들어진 까닭으로 후대의 교란에 의하여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구에서조차 유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신월 유적의 무덤방에서 나온 것이라야 겨우 토기 조각 몇점이 있을 뿐이며, 그밖의 유물로는 출토지점이 불확실한 화살촉과 가락바퀴가 1점씩 있었을 따름이었다. 이와 같은 께묻거리의 빈약한 출토 상황은 그 무덤에 묻힌 구성원의 약한 세력 배경 또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된 매장 풍습의 특이성 등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비교적 좋은 유물이 나왔던 진양군 한들 유적의 고인돌무덤과 대조를 이룬다.

신월의 돌칸무덤은 그 규모로 보아서 많은 인원의 동원이 없이도 축조가 가능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으로서는 각각의 널 사이에 있어 무덤을 쓴 선 후관계를 구분하기란 어렵고, 구역별로 묻힌 사람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공동무덤 내지는 가족무덤으로서 일단 분류하고 있지만 소폭리 일대에 분포되어 있던 고인돌무덤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

수께끼로 남는다.

각 무덤의 규모와 분포 상태로 볼 때, 전체 구역 가운데는 ㄱ구역의 1호 무덤이 가장 중요한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되며, 구역에 따라서는 ㄴ구역의 3호 무덤과 ㄷ구역의 6호 무덤이 다른 것들에 비하여 보다 중심된 역할을 담당했으리라 생각된다. 각 무덤방이 자리한 위치 문제와 배열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이 유적의 연대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현재로서는 신월 유적의 연대에 관하여 만족할만한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토기의 분석에 나타난 몇몇 특징을 통하여 신월 유적의 민토기가 아주 늦은 청동기시대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만을 엿보았을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ㄱ구역의 돌간무덤 중앙에 자리한 판석을 고인돌무덤의 덮개돌이 축약화되어진 것으로 유추하며 연대 문제를 논할 수 있겠으나,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그와 같은 형식론은 신월 유적의 연대를 따지는데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월의 무덤 형식에 비교될 수 있는 유적의 발굴조사 및 연구 성과가 더욱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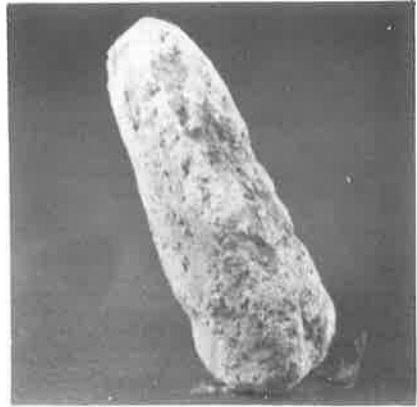
- 김병모·최호림·김명진·심광주, 1984. <중원 하천리 D지구 유적발굴 조사보고>《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고고·고분분야(Ⅱ)》(충북대학교 박물관).
- 김상조, 1968. <사천만을 중심한 선사유적>《고고미술》91.
- 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 원시유적 발굴보고>《고고민속논문집》4.
- 김재원·윤무병, 1967. 《한국 지석묘 연구》(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6책).
- 김진우, 1972. 《한국 옹기공방의 실태연구-제작기법, 용어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나세진·장신요, 1967. <황석리 제13호 지석묘에서 출토한 고분골의 일례>《한국 지석묘 연구》(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6책).
- 노혁진, 1986. <적석부가 지석묘의 형식과 분포>《한림대학 논문집 : 인문·사회과학편》4.
- 노혁진·최은주, 1982. <중도 지석묘 발굴보고>《중도 발굴조사 보고서》(중도 선사유적 발굴조사단).
-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하권.
- 방선주, 1968. <한국 거석제의 제문제>《사학연구》20.
- 서성훈·이영문, 1983. 《강진 영복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국립광주박물관·강진군).
- 석촌동 발굴조사단, 1987.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울특별시·석촌동 발굴조사단).
- 안춘배, 1977. <남강 상류의 선사문화 연구>《백산학보》23.
- 윤세영, 1987. <고분에 부장된 토기의 일 고찰>《삼불 김원룡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총 I》.

- 이기길, 1988. <암사동(바위절)유적의 신석기시대 뽕족밀 무늬토기의 연구>《손보기 박사 정년기념 고고인류학논총》.
- 이영남, 1988. <고고학 연구에 있어 자연과학의 활용>《한국상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I)》(한국상고사학회).
- 이용조·신숙정·우중윤, 1984. <제원 황석리 B 지구 유적발굴 조사보고>《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충북대학교 박물관).
- 이용조·신숙정, 1987. <제원 황석리 유적 출토의 붉은간토기와 가지무늬토기의 고찰>《삼불 김원룡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I)》.
- 이청규, 1986. <제주도 유적>(제주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 2 집).
- 이필영, 1987. <한국 고대의 장례의식 연구>《한남대학교 논문집 : 인문과학편》17.
- 이형구, 1988. <발해 연안 석묘문화의 연구>《한국학보》50.
- 임세권, 1984. <묘제 III (적석총)>《한국사론 : 한국의 고고학 II, 상》13. (국사편찬위원회).
- 임효택·곽동철·조현복, 1987. <거창·합천 큰돌무덤>(동의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1).
- 장철수, 1977. <통과의례>《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 : 서울편》(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 제10책).
- 정명호, 1978. <한국 옹기점의 작업과정에 대하여>《고고미술》120.
- 조유전, 1979. <경남지방의 선사문화 연구>《고고학》5·6.
- 지건길·이영훈, 1983. <중도 : 진전보고 IV>(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5책).
- 최몽룡, 1979. <광주 송암동 주거지·충효동 지석묘>(전남대학교 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 1 책).
- 최몽룡·강경인, 1986. <영암 장천리 주거지 출토 무문토기편의 과학적 분석>《영암 장천리 주거지 II》(목포대학 박물관).
- 최몽룡·박양진, 1985. <여주 혼암리 토기의 과학적 분석>《고문화》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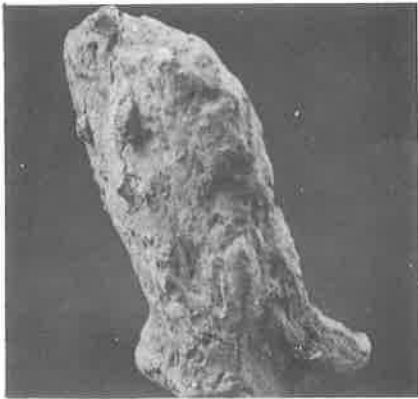
- 최몽룡·윤동석·이영남, 1985. <충북 제원 양평리·도화리 출토 홍도 및 철제품의 과학적 분석>《윤무병 박사 회갑기념논총》.
- 최복규, 1984. <중도 고인돌 발굴조사 보고>(강원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 2 집).
- 최영희·노혁진, 1986. <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조사보고>(한림대학 박물관).
- 한글학회 지음, 1980. <한국지명총람>9 (경남편 II).
- 한병삼·김종철, 1974. <양평군 상자포리 지석묘(석관묘)발굴보고>《팔당·소양댐 수몰지구 유적발굴 종합보고》(문화재관리국).
- 한상복·전경수, 1969. <이중장제와 인간의 정신성>《한국문화인류학》2.
- 황기덕, 1963. <황해북도 황주군 심촌리 긴동 고인돌>《고고학 자료집》3.
- 황기덕·리원근, 1966. <황주군 심촌리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보고>《고고민속》3.
- 森川昌和, 1987. <繩文村の一年>《藝術新潮》38-12(新潮社, 日本).
- Choi M.L., 1981. Analysis of 'Plain Coarse Pottery' from Ch'olla Province and the Implication for Ceramic Technology and so-called 'Yongsan River Valley Culture Area'. *Hankuk Gogo-Hakbo*, n. 10-11.
- Choi M.L., 1983. The Analysis of Plain and Red-painted Polished Korean Pottery Sherds Excavated at Yangp'yongni, Chewŏn-gun County, Ch'ungh'ong Pukto Province. *Donga Munhwa*, n.21.
- Jelinek J., 1984. L'art paléolithique en Tchécoslovaquie. *Les Dossiers/Histoire et Archéologie*, n. 87, Octobre(France).
- Sulimirski T., 1970. *Prehistoric Russia*(Humanities Press, New York).
- Van Gennep A., 1908. *The Rites of Passages*: 서영대 옮김, 1986. <통과의례>(인하대학교 출판부).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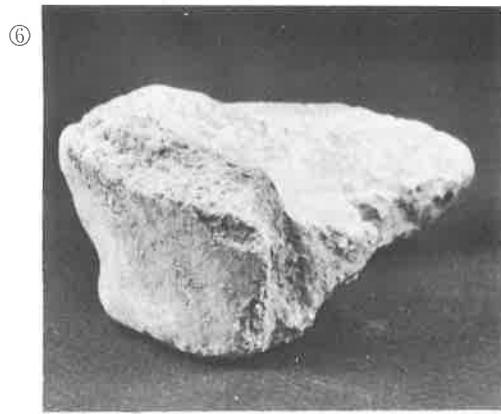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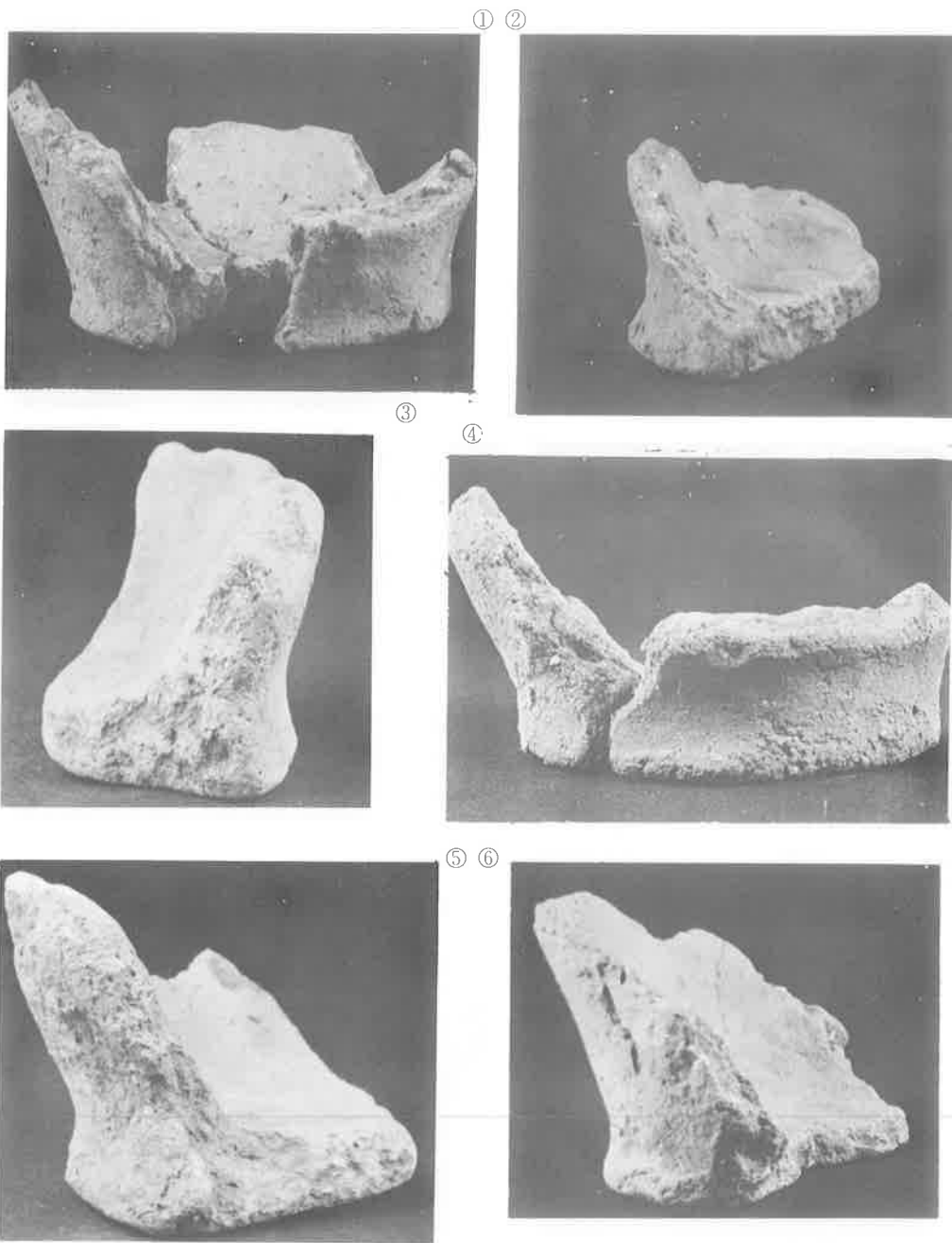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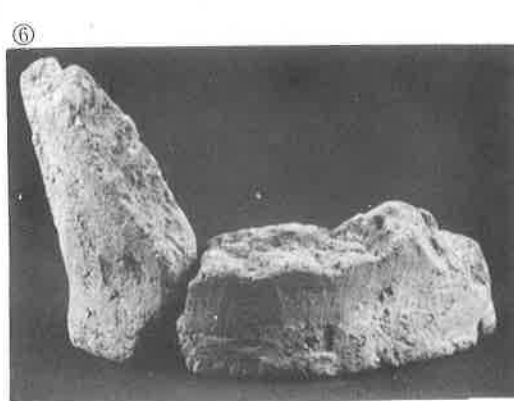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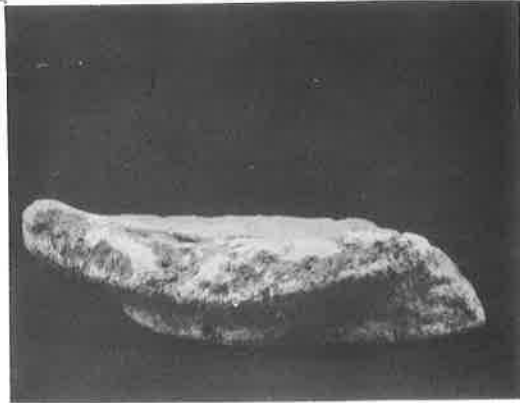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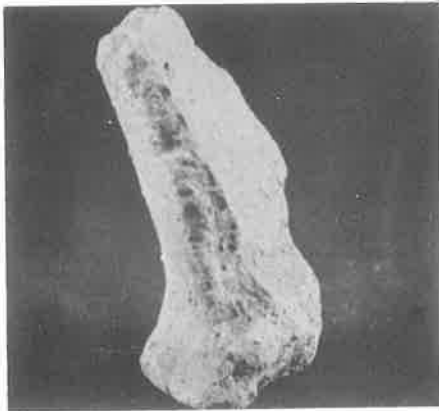
〈사진11〉 4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4-1, ②4-3, ③4-5, ④4-8, ⑤4-9, ⑥4-10).
각 유물의 크기는 그림7·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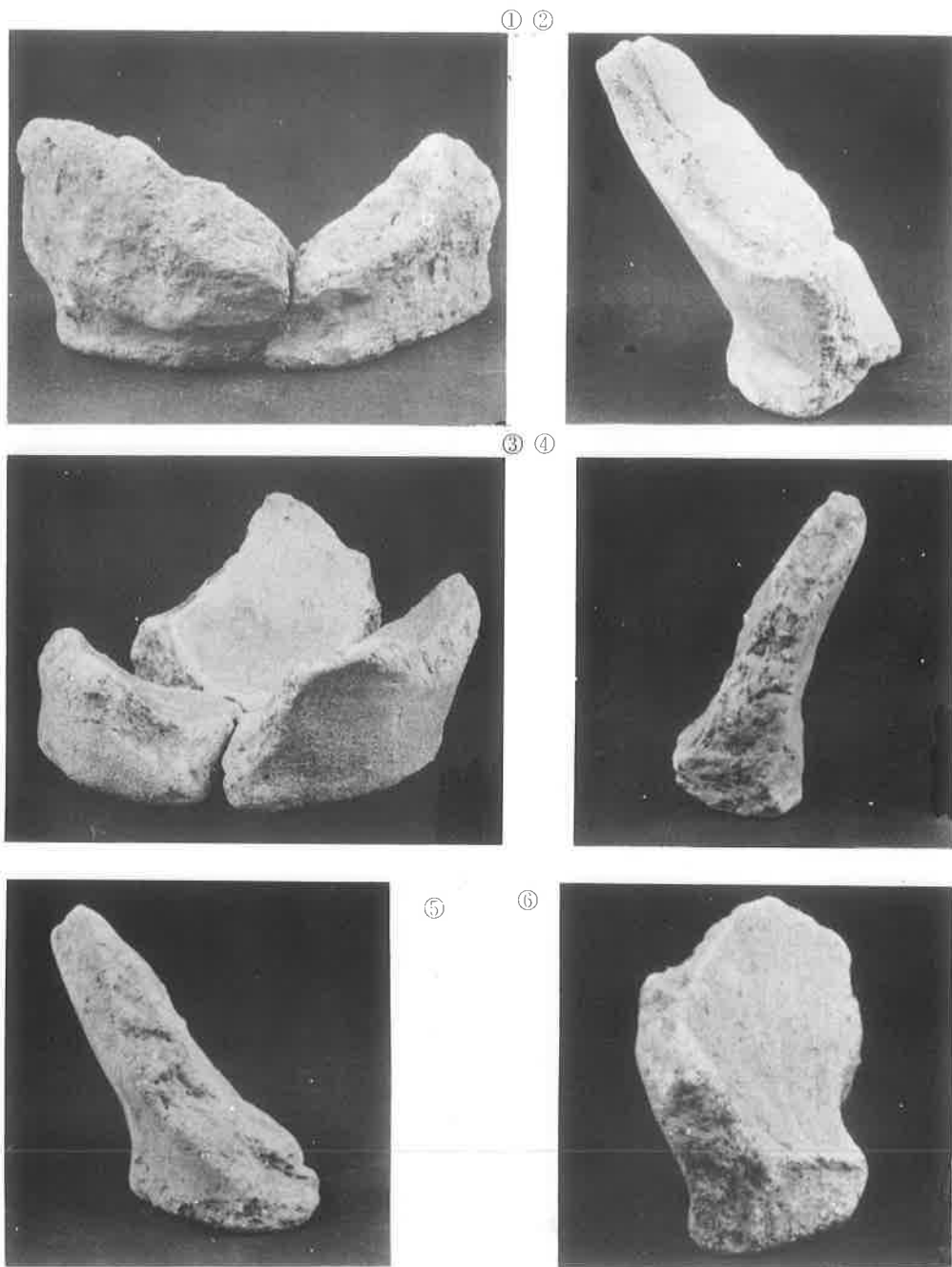
〈사진12〉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5-1·38·39, ②5-3, ③5-2·25, ④5-4, ⑤5-6, ⑥5-8),
 각 유물의 크기는 그림9·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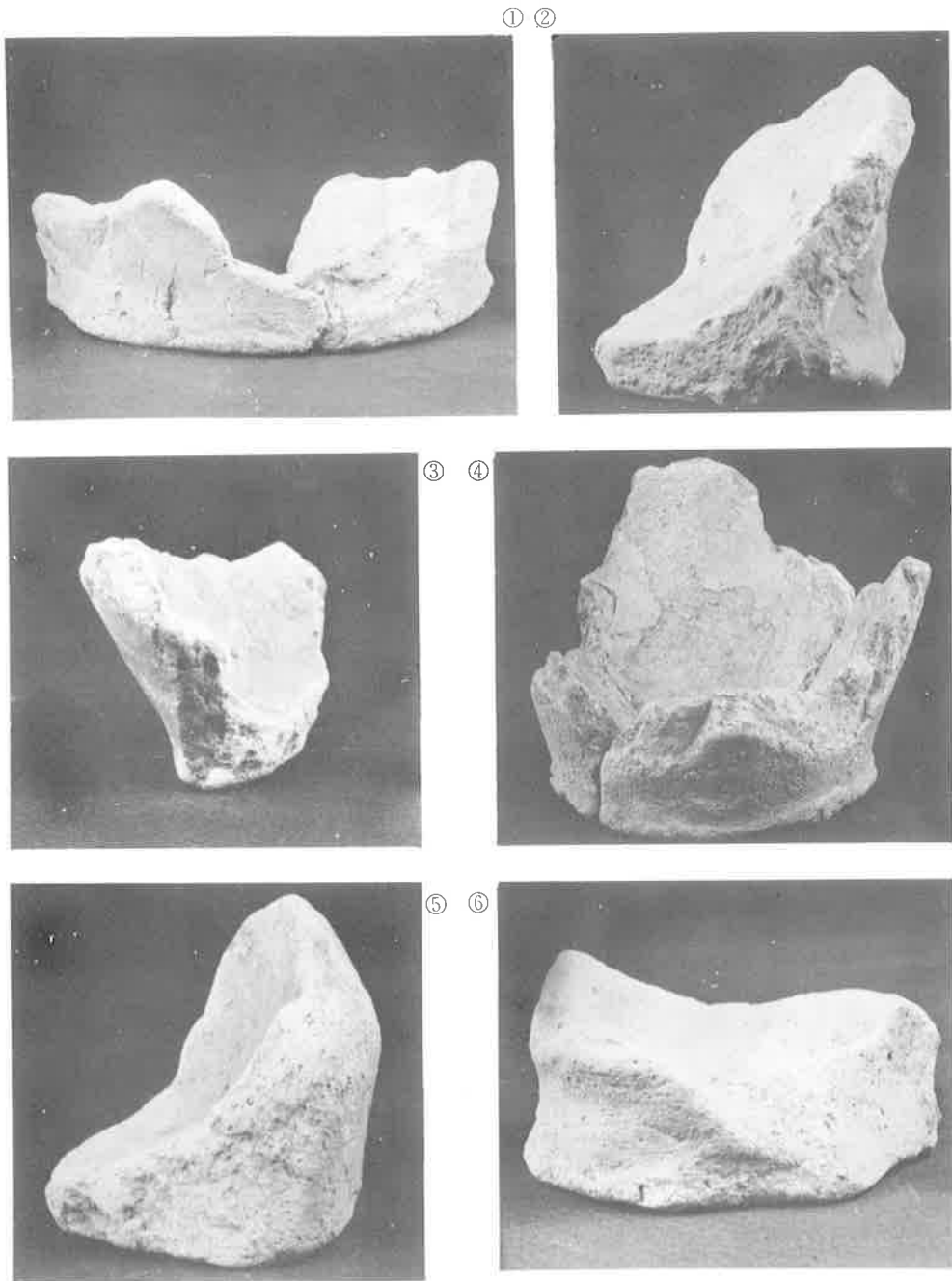
〈사진13〉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5-10, ②5-14, ③5-22, ④5-29, ⑤5-40, ⑥5-30·32),
 각 유물의 크기는 그림11·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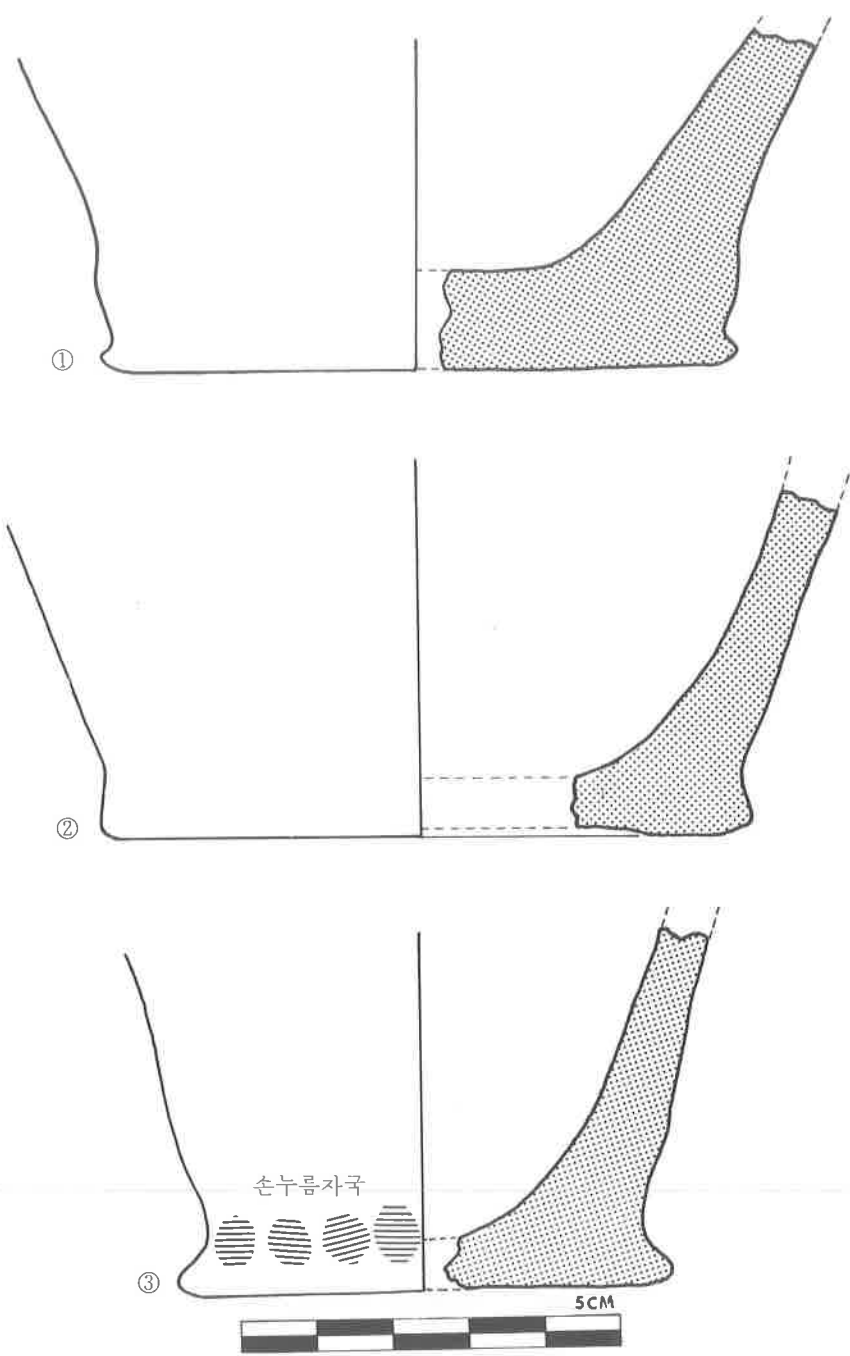
〈사진14〉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7-1·9, ②7-4, ③7-5·25·27, ④7-6, ⑤7-7, ⑥7-10).
 각 유물의 크기는 그림13·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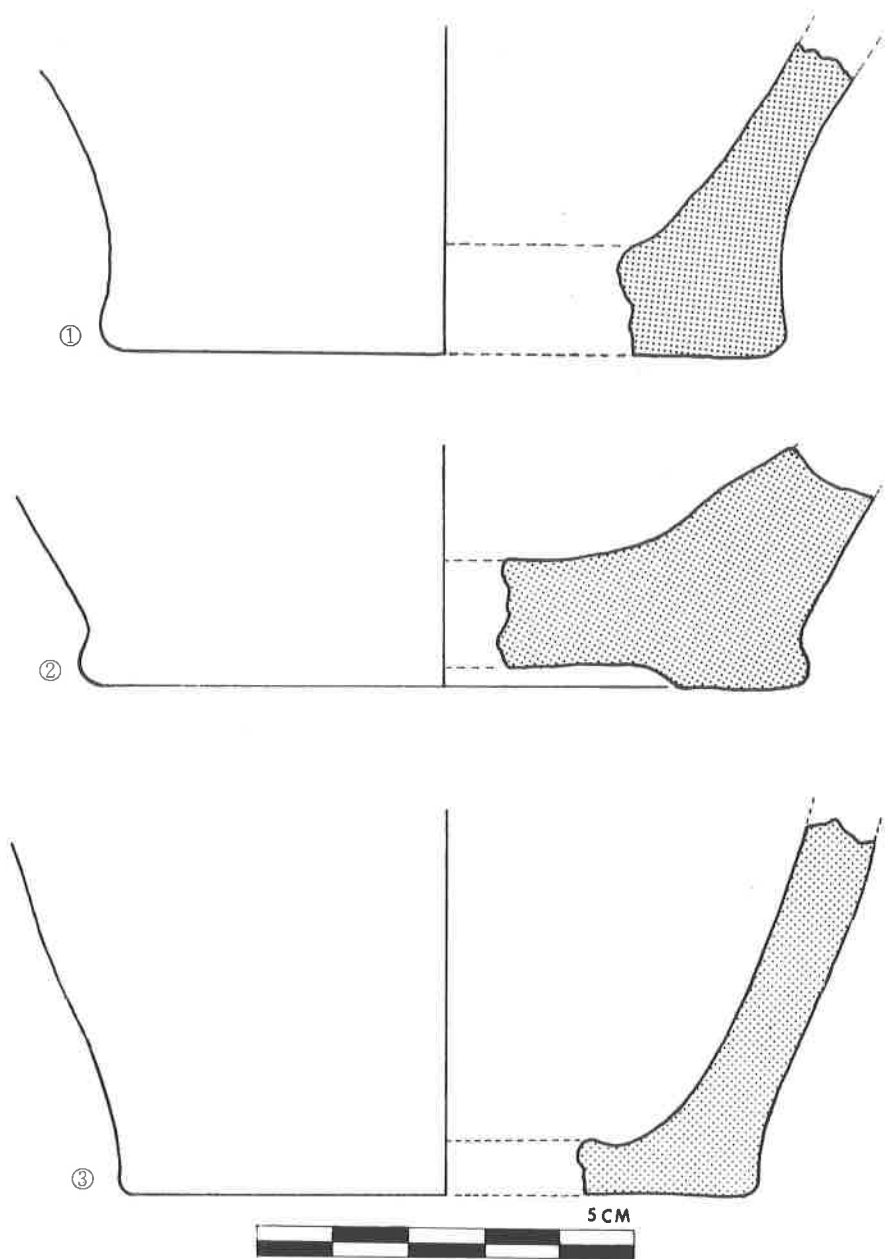


〈사진15〉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와 D칸의 붉은간토기(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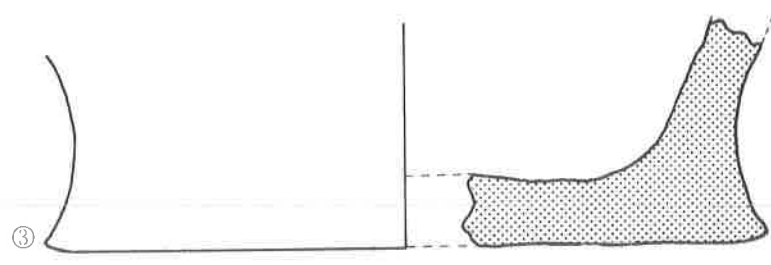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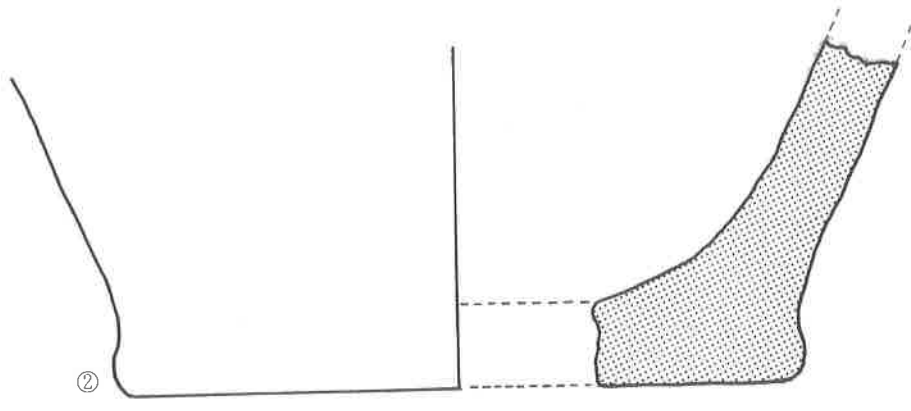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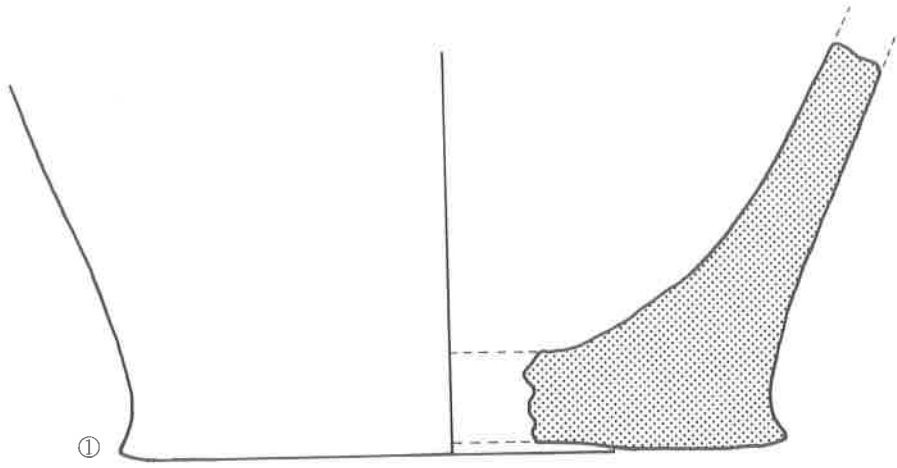
(유물번호 : ①7-11·12, ②7-15, ③7-18, ④7-19·21·24, ⑤7-26, ⑥D-6782).
 각 유물의 크기는 그림15·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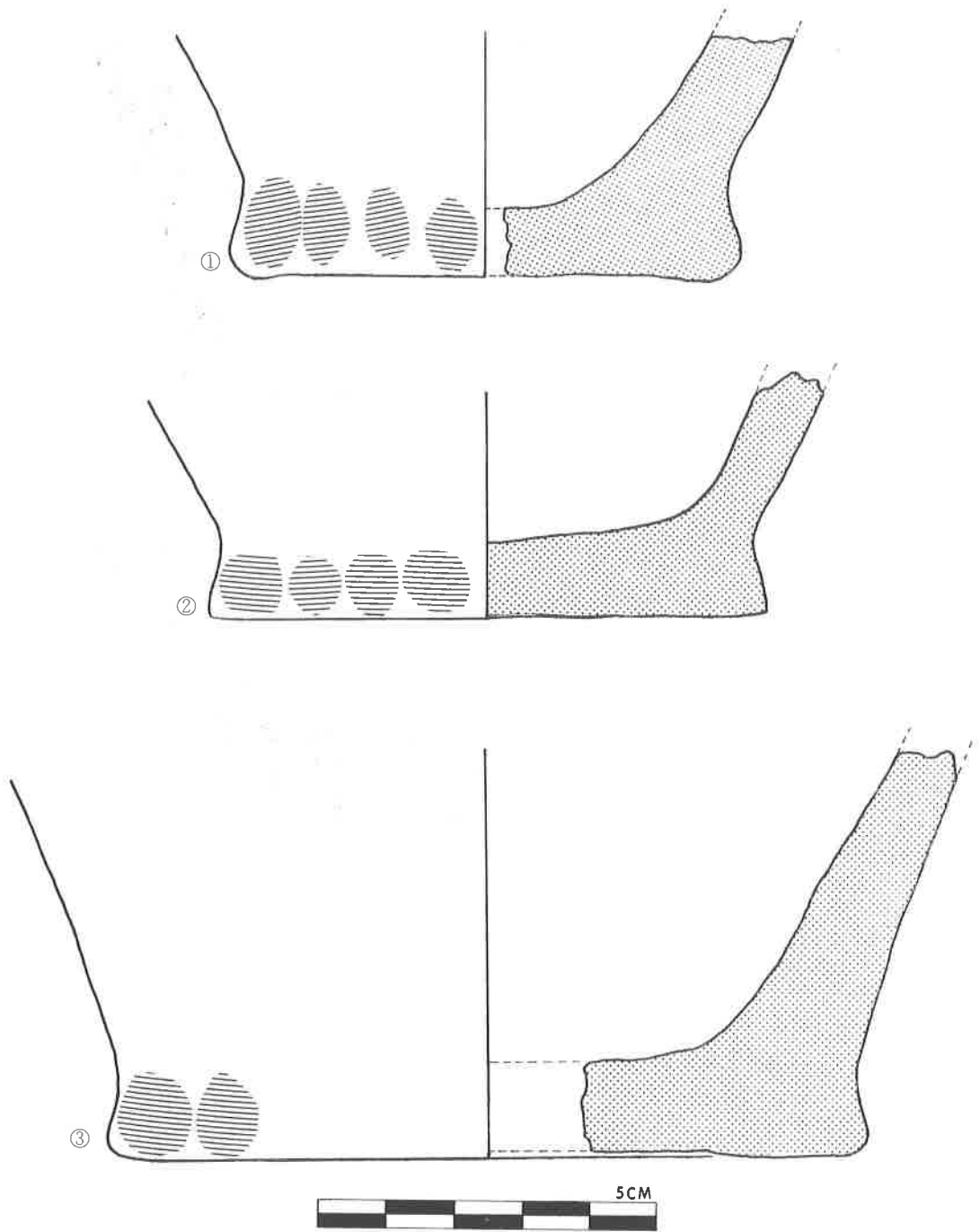
〈그림7〉 4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4-1, ②4-3, ③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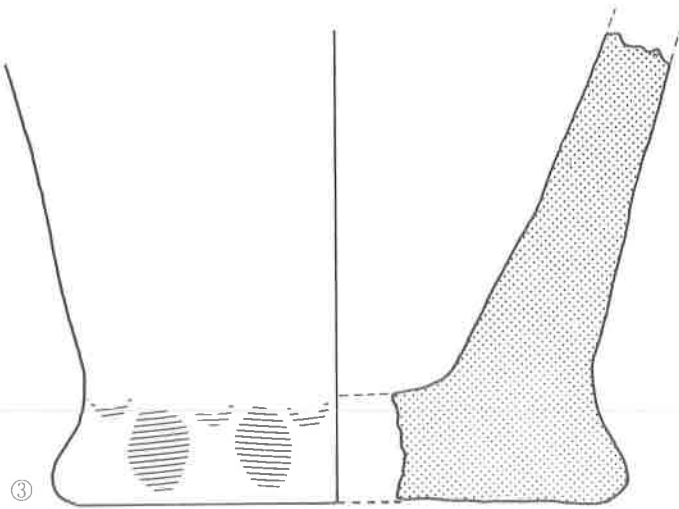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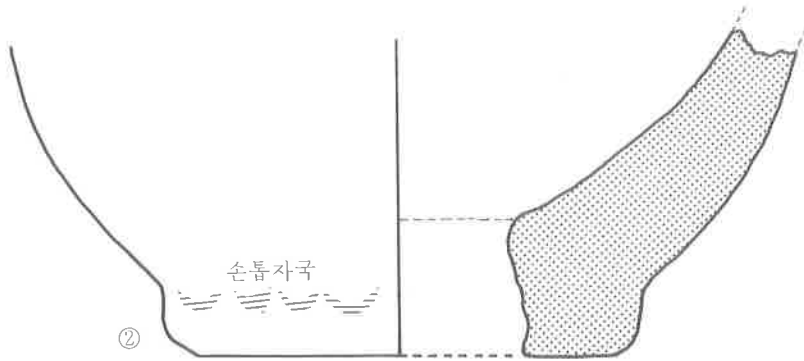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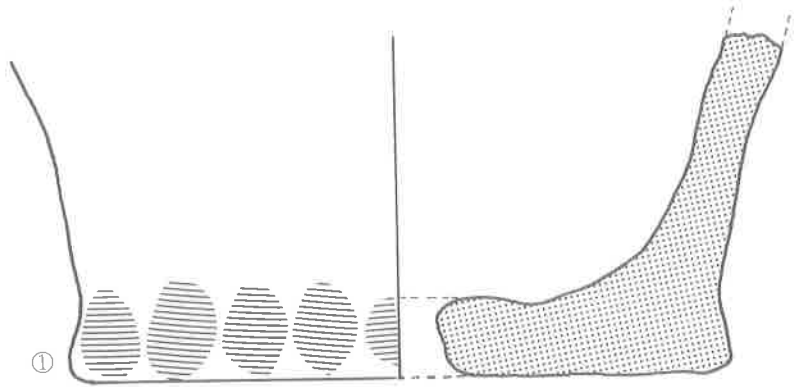
〈그림8〉 4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4-8, ②4-10, ③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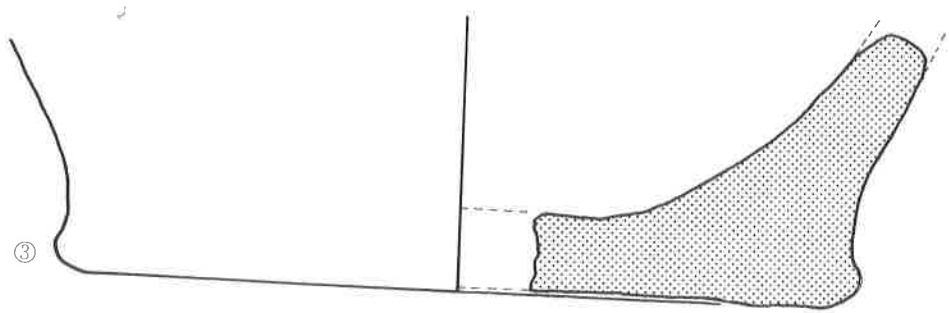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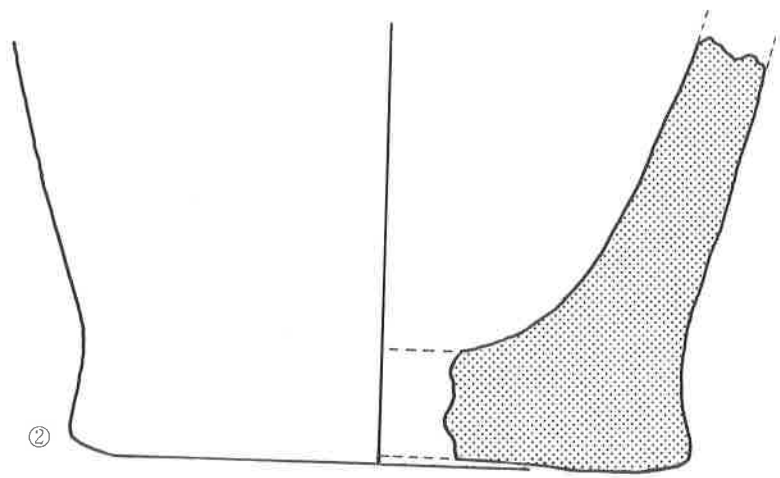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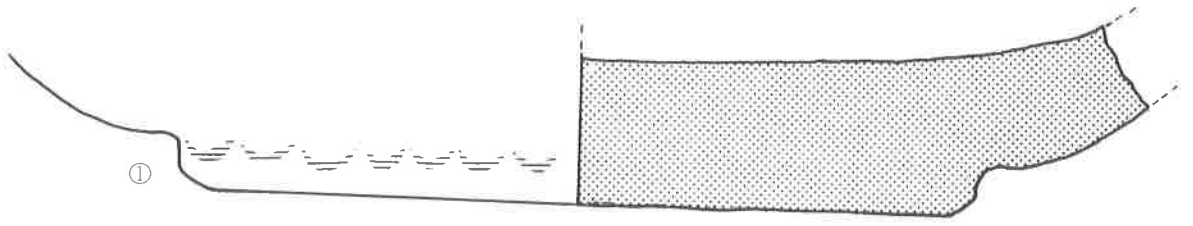
〈그림9〉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5-1·38·39, ②5-2·25, ③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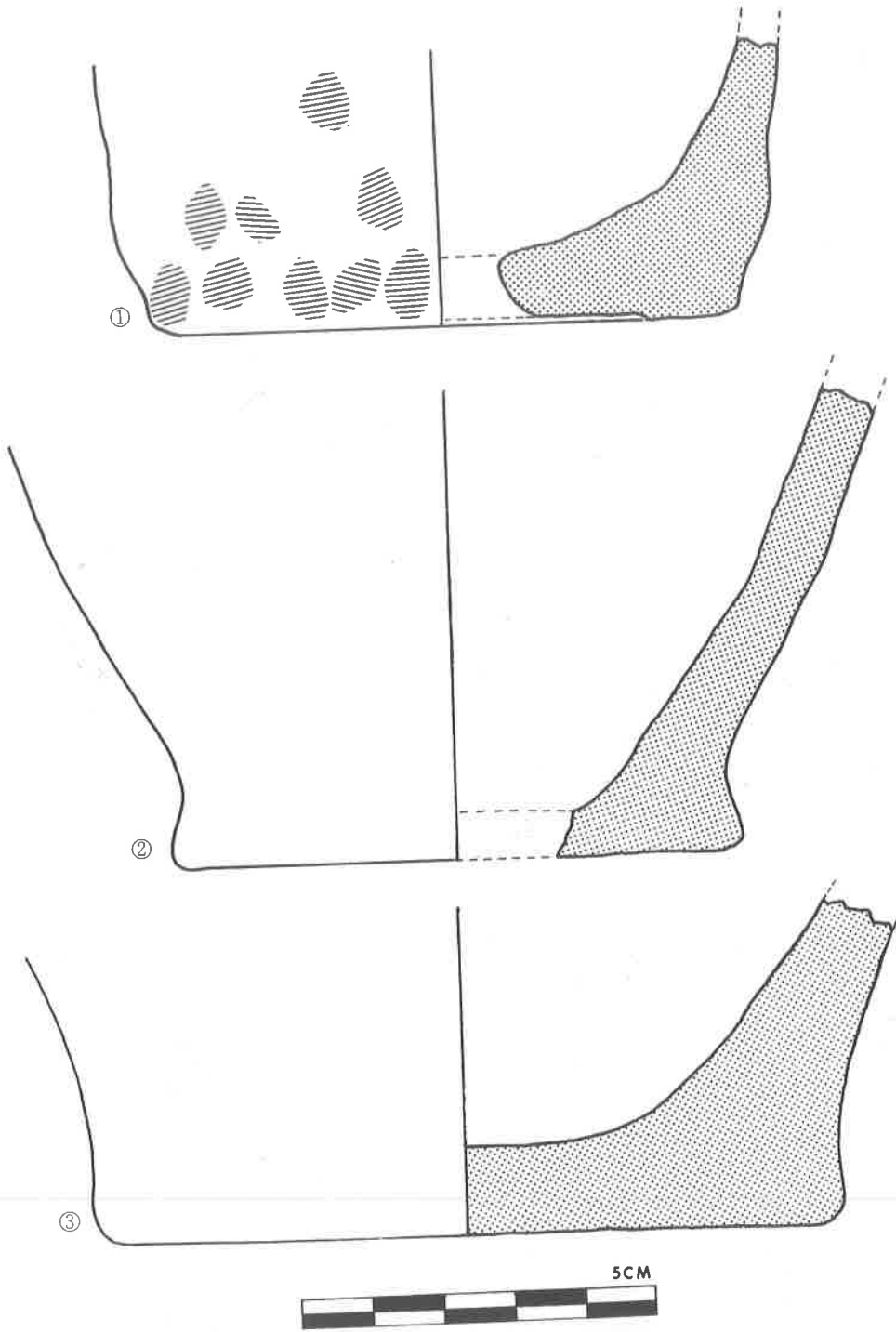
〈그림10〉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5-4, ②5-6, ③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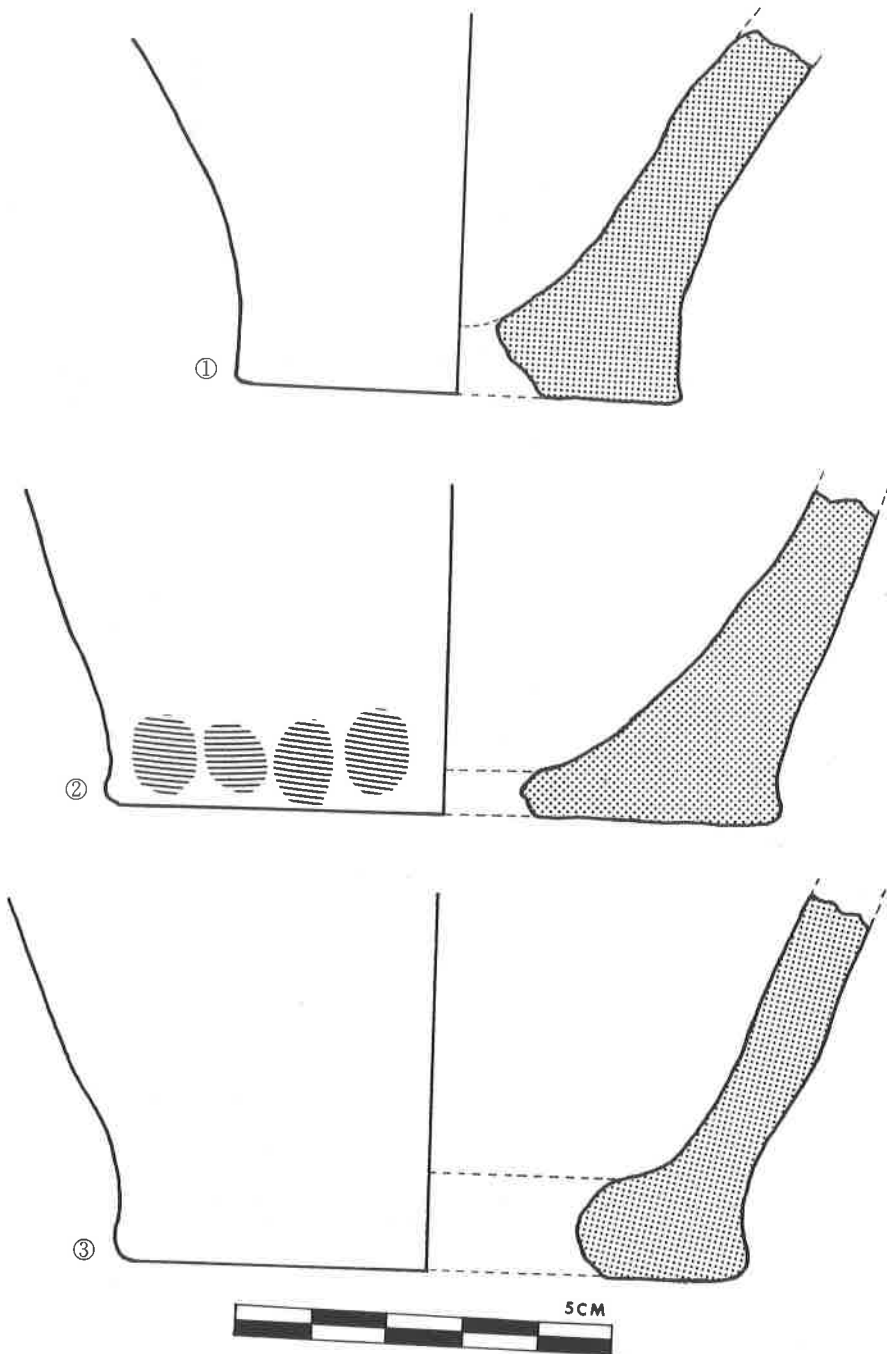
〈그림11〉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5-10, ②5-14, ③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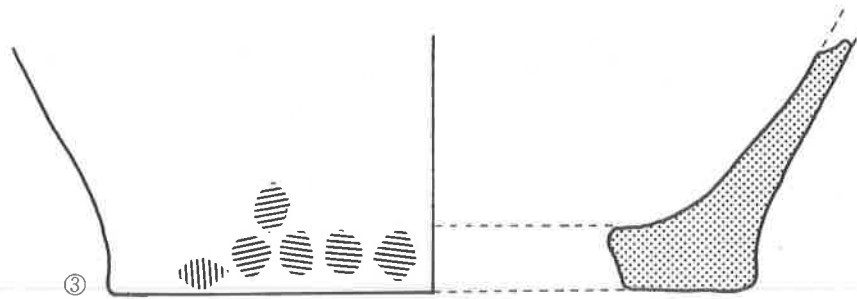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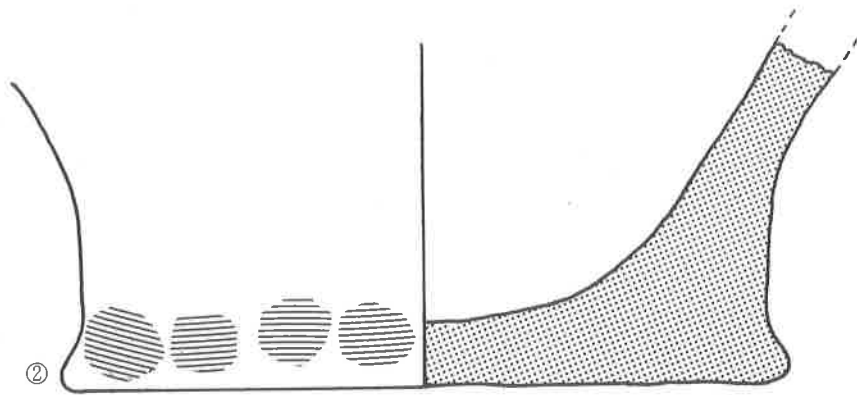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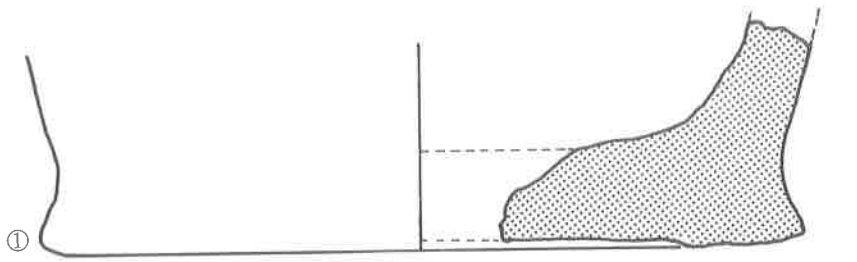
〈그림12〉 5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5-29, ②5-30·32, ③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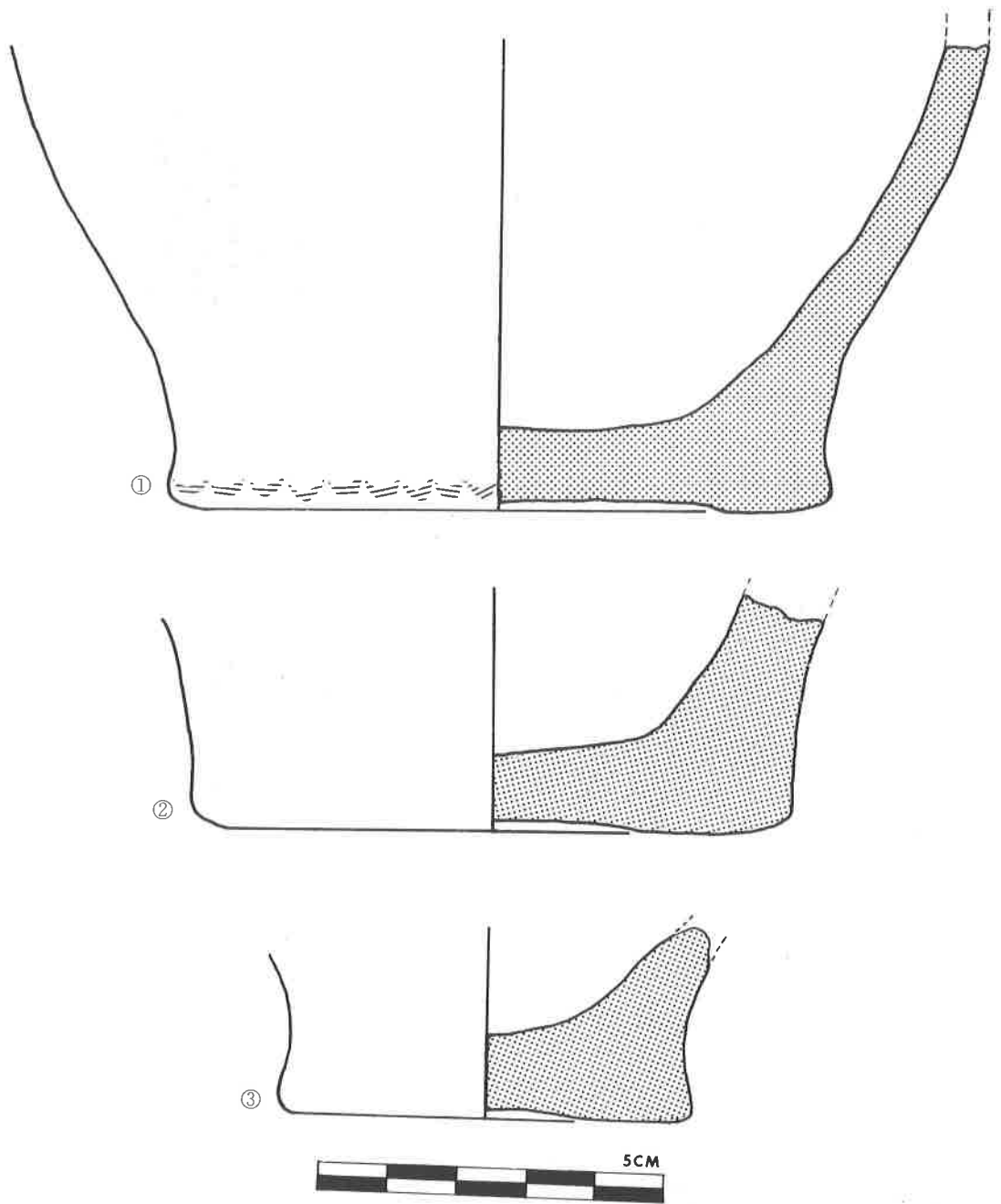
〈그림13〉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7-1·9, ②7-4, ③7-5·25·27).



〈그림14〉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7-6, ②7-7, ③7-10).



〈그림15〉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
 (유물번호 : ①7-11·12, ②7-15, ③7-18).



〈그림16〉 7호 무덤의 널 주변에서 나온 민토기와 D칸의 붉은간토기(③)
 (유물번호: ①7-19·21·24, ②7-26, ③D-6782).